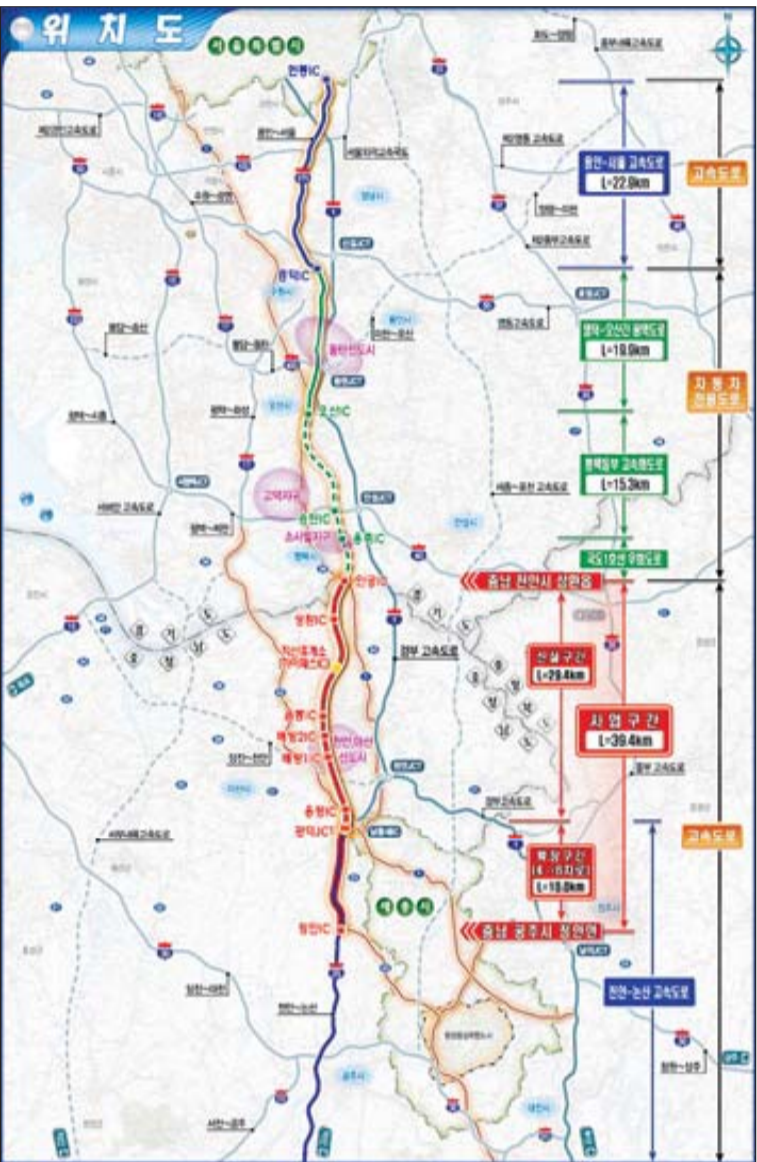


## 천안 성환~공주 정안 민자 고속도로 추진

민간기업, 국토교통부에 사업추진 제안서 접수... 2026년 개통 목표



충남 천안시 성환읍 안공리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공주시 정안 나들목(IC)을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건설될 전망이다. 이로써 천안 동부지역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이어 천안 서부지역 고속도로망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지역 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는 민간기업이 천안(성환)과 공주(정안)를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 사업 추진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안(성환)-공주(정안) 간 민자 고속도로는 북쪽으로는 2024년 개통 예정인 평택동부 고속화도로를, 남쪽으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연결해 천안시와 아산시를 통과하고 용인-서울 고속도로, 영덕-오산간 광역도로와 연계된 남북축 간선 도로망을 구축한다. 총 연장 길이는 39.4km이며, 확장구간(4~6차로) 10km, 신설구간(4차로) 29.4km로 계획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국도1호선 우회도로(천안성환~평택소사)를 거쳐 평택동부 고속화도로와 연결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개발연

구원(KDI)과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사업자가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2년 착공, 2026년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지역 내 구간이 전체 노선의 약 50%를 차지하는 천안-공주 간 민자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주요 관내 산업단지와의 천안·아산 신도시를 주변으로 6~7개의 나들목이 설치돼 물류수송체계가 확충됨은 물론 천안·아산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동부지역에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 서부지역에 천안-공주 간 민자고속도로를 개통시켜 고속철도, 수도권전철, 국도를 비롯한 5개의 고속도로망을 갖춘 사통팔달 교통중심도시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병영 시장은 "천안-공주 간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상승 지·정체 해소 및 광역수도권, 충남지역 연결도로 기능 강화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지역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장복 기자



비닷길 열리는 '태안안면도 할미·할아버비위' 애절한 천년사랑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태안안면도 '할미·할아버비위'에 신비한 모양의 파도 속비닷길이 열리고 아름다운 낙조의 풍경이 더해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된 '할미·할아버비위'는 만조 시에는 바다위의 섬이 되고, 간조 시에는 육지와 연결돼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며, 해수욕장의 모래 사구, 바다 등과 어우러진 일몰 경관이 매우 뛰어나 우리나라 서해안 낙조감상의 대표적인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테미고개 지하화로 추진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당초 예타면제 통과된 6,950억 원 대비 최소 902억 원 증액된 7,852억 원 규모 이상으로 추진된다. 대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 이후 약 6개월 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의 적정 규모가 기본안 7,528억 원, 대안 7,852억 원으로 검토됐다고 26일 밝혔다. 기본안과 대안 모두 지난 8월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기본계획 승인 시 총사업비 증액의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기본안의 경우, 예타 면제 통과 사업비 대비 총 57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서대전육교 고심도 복선터널 도입에 따른 지하화 사업비 358억 원, 테미고개 급경사 조정(트램차선 U-type 시공을 위한 30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대안의 경우, 그동안 대전시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테미고개 2차로 복선 터널화 사업비 324억 원이 추가 반영된 것이다. 김태선 기자

대전시는 이에 따라 심의를 통과한 두 가지 계획안 중 테미고개 지하화를 포함하고 있는 대안을 기본으로, 추가로 필요한 사업계획 내역을 기본계획에 담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종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일반차도를 모두 포함한 서대전육교의 지하화의 경우, 기획재정부 사업비 증액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번 적정성 검토 최종 심의 결과에는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교통소통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측면에서 유리하고, 심의 통과된 기본안과 비교 시 사업비 차이도 크지 않으며, 향후 노후화(건설 후 50년 경과된 서대전육교 개량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기본안보다 적절한 대안으로 검토됐던 만큼 시는 해당 계획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재협의를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의를 통과한 트램 2차로 서대전육교 지하화 사업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과정에서 서대전육교 기초와의 저축으로 저심도에서 고심도 건설 방식으로

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상태다. 일반차도를 포함한 8차로 지하화를 위해서는 169억 원 추가 반영(예타 면제 당시 510억 원 추가 필요)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램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고,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됨에 따라 그동안 정체됐던 사업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9월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 대전시 박재화 트램도시공역본부장은 "그동안 대전시,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필요한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서대전육교 일차로 지하화에 필요한 169억 원 등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기본계획 승인 단계에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대전시 호남선 고속화사업 예타 대상사업 최종 선정

'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시는 '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지난 21일 정부의 재정사업 평가 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

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 요시건이 지금보다 10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대전역 KTX 증편을 비롯해 충청과 호남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정부의 서대전역 운행 호남선 KTX감량 조치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대전시의 지역 정치권이 하나가 돼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가수원에서 논산에 이르는 34.4km에 이르는 호남선 잠고인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성구 기자

선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끝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늦어도 이번주 수요일에는 (출발이지만 인사청문회를 해야한다)는 저희 당 입장도 있고, 국민들도 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2인과 3일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문회 증인과 접고인

### 與野, 조국 인사청문회 9월 2~3일 실시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

의했다. 회동 이후 송 의원은 "9월 3일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밖이지만 인사청문회를 해야한다"는 저희 당 입장도 있고, 국민들도 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2인과 3일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문회 증인과 접고인

당진화력이 친환경 미래 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Small text describing the company's commitment to clean energy and future growth.]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이창선 의원 의원직 즉각 사퇴해야”

## 공주 일부시민단체, 의회내 폭력행위 경악 금치 못해... 검찰에 고발

이창선 공주시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시민단체들이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공주잡아차지시민연대, 동학농민전쟁유급타기법사업회, 전교조공주지회, 공주농민회 등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자칭 '이창선 의원 고발 시민단체'는 이날 대전지검 공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창선 의원의 의회 내 폭력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민의의 정당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폭거이자 공주시민 모두의 명예를 유린한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던 지난 8일 회의 중에 자신의 예산

안 삭감안이 관철되지 않자 의회 책상 유리를 깨 뒤 유리조각을 먹어버리겠다, 배를 그어 버리겠다 등의 자해소동을 일으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회의를 방해했고, 유리조각을 던져 파편이 튀면서 예결위원장 얼굴에 상처를 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면서 "특수업무방해, 폭행치상, 공공기물 파손,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주시의회는 이창선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 자유한국당은 이창선 의원을 즉각 징계할 것, 이창선 의원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자유발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폭력으로 물든 사태와 관련해 수수방관할 수 없어 나섰다"면서 "시민들이 검찰청 앞에 모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 진보단체들의 이날 행동은 맞춤형 자대에 의한 '민주당 편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풍면에 사는 조 모씨는 "양이치 것이나 하는 자유한국당이 싫어 그나마 중립적인 공주로 이사 왔는데"라면서 한국당에 대한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창선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꼬집으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석순 전 의원의 명함 파문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하기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다.

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고교 모임 식대를 내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표 의원 문 제도 공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는데도 한 마디 언급이 없는 것은 맞춤형 자대에 의한 이중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맞춤형 자대에 의한 이중적 행태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창선 의원 고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주당 들러리, 민주당 외곽조직이라는 지적은 심한 모욕으로 정당과 정파를 떠난 순수한 시민단체 모임"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사전 선거운동과 명함파문에서부터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회의 중 휴대폰 삼매경, 자해소동에 이르기까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공주시의회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달 소집될 임시회에서 윤리위가 열람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주=정성범기자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이장우 국회의원 선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26일 오전, 당사 회의실에서 제9차 대전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전 동구 이장우<사진> 국회의원을 대전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의원은 선출 직후 인사말에서 "총선을 앞두고 당이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셔서 어찌가 무겁다"며, "당을 위해 오랜기간 헌신하신 분들을 잘 모시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시민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명한 시민들과 함께 분단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또, 대전지역 당원과 당협위원장들의 힘을 모아, 대

전시정의 실정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당 운영방침을 강조했다.

한편, 이장우 시당위원장은 1965년 충남 청양 출신으로, 대전고와 대전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주요 경력으로는 민선 4기 대전 동구청장을 역임했고,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자유한국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 전국위원회 부의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정복기자

## 아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개최

내달 3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 들어가



아산시의회는 26일, 제21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내달 3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황재만 의원과 김희영 의원 선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건으로 「천안·아산행정협의회」 민간자문단 제2기 위원 및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안정근의원 추천 ▲의원 징계 보고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진행됐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황재만 의원과 김희영 의원 선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건으로 「천안·아산행정협의회」 민간자문단 제2기 위원 및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안정근의원 추천 ▲의원 징계 보고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진행됐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황재만 의원과 김희영 의원 선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건으로 「천안·아산행정협의회」 민간자문단 제2기 위원 및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안정근의원 추천 ▲의원 징계 보고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진행됐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황재만 의원과 김희영 의원 선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건으로 「천안·아산행정협의회」 민간자문단 제2기 위원 및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의원 발의) ▲아산시 시민안전보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으로 총 4건이며, 아산시장 제출 31건과 함께 상임위원회 개별 심사한다.

맹의석 의원은 제8대 아산시의회 1년을 정리하며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영애 의장은 "시민의 기대와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와 함께 지금까지 진행된 각종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성숙되고 변화에 능동 대응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달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4회 임시회의의정일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 여기구 의원, 당진 현안 협의 위해 중앙부처 방문

환경부·국토부·해수부·문체부·고용노동부 잇달아 방문



여기구 의원은 26일, 정부 중앙부처를 잇달아 방문해 당진 지역 현안을 협의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환경부를 방문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당진에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당진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영향 분석,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적지이며, 지리적 특성상

중국발 미세먼지 모니터링에 용이하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당진의 오랜 숙원사업인 함덕~고덕(국도 40호선) 4차로 확장사업과 당진-송악(국도 32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에 당진의 한진포구, 마선항, 왜목항, 용무치항 등 4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사업계

획서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으며 올해 9월에 공모 신청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충청 유교문화권 여민동락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당진 설치를 건의했다.

여기구 의원은 "당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에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각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 세종시의회, 제57회 임시회 27일 개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황재만 의원과 김희영 의원 선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건으로 「천안·아산행정협의회」 민간자문단 제2기 위원 및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안정근의원 추천 ▲의원 징계 보고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진행됐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황재만 의원과 김희영 의원 선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건으로 「천안·아산행정협의회」 민간자문단 제2기 위원 및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운영위원회

## 충남도의회 '농촌복지 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복지 실현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26일 서천군 문예의 전당에서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각계각층, 도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 대표인 양금봉 의원(서천2이 좌장을, 협동조합 '함께하는'의 조미형 연구위원과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 이병도 회장이 발제를 맡았고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장, 충남도 김윤호 농업정책과장, 서천군 김재연 보건소장, 충남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농촌의

복지 현황과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해 토론했으며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금봉 의원은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로 오래된 활력을 잃으면서 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농촌 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연구모임을 꾸리고 토론회 개최, 농촌 현장 방문에 이어 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세종=김태성기자

## 대전 중구의회 서명서 의장 일본 규탄 첩리지 참여



대전 중구의회 서명서 의장이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1일 1인 일본 규탄 첩리지'에 동참했다. 일본 아베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메시지와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서명서 의장은 23일 중구 어남동에 소재한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지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해주는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더민주당 천안을지역위, 당원교육 및 정책페스티벌

박원주 의원 "당원이 만든 정책을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당원중심 직접민주주의 축제"



더불어민주당 천안을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국회의원 박원주)가 지난 22일 '당원교육 및 정책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당원 교육에서는 '21대 총선 및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의 강)의가 있었으며, 정책페스티벌에서는 8개 당원협의회와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의 10개조로 나누어 정책제안 토론회가 이어졌다.

특히 ▲문화체육 ▲생활안전 ▲지역돌봄확충 ▲교육 ▲주거환경 ▲지역경제발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기타 자유주제의 8개의 주제로 진행된 정책페스티벌에서는 박원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100여명의 당원이 참여한 10개조가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정책 페스티벌에서 논의된 10가지 정책 중 1위부터 3위까지 선정된 정책은 시도당 대회에 건의되고 시도당 대회에서 1위부터 3위까지 정책은 최종 본 대회에 건의 된다. 국회=김성구기자

이날 참석한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여 1위로 선정된 정책은 '대한민국 축구센터 활성화 방안'이었고, 공동 2위는 '지역경제발전제안'과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법제화'가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초중고 기숙형 공립 국제학교 건립 ▲도농격차 해소 및 균등발전을 위한 기초인프라 의무조성 ▲직산향교길에서 찾는 농촌문화유산탐방 ▲마을힐링센터 구축 ▲아동과 어르신 돌봄 서비스 모델 제시 ▲횡단보도보행 시스템 사용 중지 의무화 ▲장애인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박원주 의원은 "당원이 만든 정책을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당원 중심의 직접민주주의를 함께 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제안해주시는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성구기자

## 조승래 의원 "충청권 고전번역전문인재 양성 기대"

한국고전번역원-대전시-충남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고전번역원 충청분원 설치를 위한 '한국고전번역원-대전시-충남대 업무협약'이 26일(월) 오후 2시 대전시청에서 진행됐다. 업무협약식에는 조승래 의원(대전우성구갑), 한국고전번역원 신승은 원장,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 충남대학교 오덕성 총장이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대전분원의 설립 ▲대전분원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 ▲지역의 고전 교육과 학술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날 MOU는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의원이 충청권 지역의 고전번역 교육 인프라 부재로 인한 불균형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계 기관,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조승래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권역별 고전번역 인재양성을 위한 충청권 분원 신설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올해 5월 충남대에서 <학술문화 진흥과 권역 학문고전 인재 양성을 위한 고전번역교육원 대전분원 설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예산을 살피는 등 고전번역교육원 대전분원 설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고전번역원이 대전분원을 설립하고 대전시와 충남대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고전교육과 학술문화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각계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충청권의 다양한 문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국비 182억 확보

공주시 유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4건 선정



공주시(시장 김경섭)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82억 원 포함 262억 원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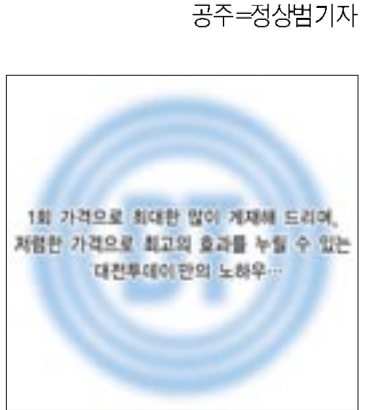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유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80억 원, 우성면 신흥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각 40억

원 그리고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유구읍과 우성면, 신흥면 일대 낙후된 읍면 소재지가 지역 고유의 테마가 살아있는 농촌발전 거점으로써의 중심지 기능회복과 지역 활성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내년부터 5년 동안 개발된다. 황의정 주민공동체과장은 "공

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농촌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공주=정성범기자



# “사회에 공헌하는 창의인재 양성”



이상명 입학처장

순천향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모집 인원의 74.4%인 1,877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수시모집은 크게 ▲학생부교과전형(1,001명) ▲학생부종합전형(797명) ▲실기위주전형(79명)으로 구분된다.

학생부교과전형 중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와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은 학생부교과 100%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정원 외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과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다른 전형에서의 중복 지원은 제한이 없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이므로 순천향대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sch.ac.kr>)에 있는 지원가능학과 조회하기 메뉴에서 자신의 학생부 교과 등급과 이수단위를 정확하게 입력해 점수를 산출한 후, 지난해 성적과 비교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시 수학 '가'형, '나'형 응시제한은 없다. 다만 의예과의 경우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과목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각각 0.5등급씩 하향 반영한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는 모든 전형에서 교직 인·적성면접을 실시하며 10% 반영된다.

이상명 입학처장은 "▲순천향대학교 인재상과 교육목표는 인간사랑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2019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0

학년도 달라지는 부분은 실기위주전형에 다소 있다. ▲학생부위주교과에서 반영하는 영역 및 과목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개 교과를 계열 상관없이 반영한다.

▲학생부위주(종합)에서 1단계 서류평가 주요 평가요소는 제출서류를 통해 고등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보고자 한다. ▲평가자 입장에서, 학생부위주(종합) 서류를 작성하는 학생에게 조언을 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기소개서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대교협이 공통양식으로 제시한 세 가지 문항만으로 구성했다.

각 질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 서류평가 요소와 연계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이나 수상실적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반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의 동기, 구체적인 내용, 배우고 느낀 점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을 투박하더라도 솔직하게 적는 것이 좋다."고 귀뜸했다.

또한, "학생부위주(종합) 2단계 면접의 진행과정과 주요 평가요소, 기출문제는 면접평가는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된 모집인원의 3배수에 대해 진행하고, 면접진행과정은 면접대기실에서 본인 확인 후 순서대로 개인별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관은 2명이며 개인별 10분 내외로 진행한다. 주요 평가요소는 전공적성,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이며,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고교생활과 미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관이 궁금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묻기 때문에 수험생마다 질문이 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리량주 기자



더 행복한 서산 시민의 서산



갈매



사과



서산생강원고



참깨



하늘군



참기름



포도



머리곰탕



서산한우

## 명절 선물은 서산시가 보증하는 서산뜨레 농특산물로!



100% 믿음과 신뢰로 드리는 서산뜨레  
서산뜨레는 서산시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기업입니다.  
[www.seosanttore.com](http://www.seosanttore.com) TEL: 896-3068



• 동 정 •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MOU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27일 오후 5시 시 교육청 증회 의실에서 열리는 유성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MOU에 참석.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통식



황인호 동구청장=27일 오후 4시 소재동 일원에서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인아드림사업 업무협약식



장종태 서구청장=27일 오후 3시 서구청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인아드림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의



정용래 유성구청장=27일 오전 11시 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리는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에 참석한다.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



박정현 대덕구청장=27일 오후 2시 40분부터 구청 증회 의실에서 열리는 공정생태관광 및 관광두레 활성화 업무협약 및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

# 청년취업희망카드 모집 '완판' 조기 마감

## 대전시, 올해 목표인원 2,500명 보다 많은 2,603명 최종 선정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취·창업 등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해주는 대전시의 취업희망카드가 올해 목표인원을 초과해 조기 마감됐다.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3,798명이 신청해 최종 심사결과 올해 예산 대비 목표인원인 2,500명의 104%인 2,603명이 최종 선정됐다. 사업 첫 시행 이후 2년 동안 연말까지 접수가 진행되던 것과는 달리 3년차인 올해부터는 청년의



높이에 맞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집중 홍보 등으로 사업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조기 마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대전시는 접수가 조기 마감된 만큼 9월부터는 선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은 희망카드 사용자에게 대전시의 청년공간과 연계해 취업 관련 정보제공 및 취업·진로 상담, 면접 크리닉, 스타디움 지원, 청년 커뮤니티 구축 등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이다. 또한, 10월중 희망카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중에는 우수 사용자 및 취업 성공사례자의 인터뷰를 담은 성공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대전시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예산 소진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지 못해 아쉽다"며 "최종 선정된 분들이 청년취업희망카드를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 자동차세와외차 과태료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매일 운행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침체 여파와 체납자의 납부억식 부족으로 체납액은 매년 증가해왔다. 중구에는 7월말 기준 지방세 89억원과 세외수입 9억원의 누적 체납액이 구 재정 건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구에서는 전반적인 관리와 전

등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84%를 점유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등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의 확실한 정리를 위해 통합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2대를 매일 구역을 달리해 운행해 모든 지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자동차 과태료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체납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향 대해 논의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6일 구청 증회실에서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유성구 북명동 유성온천지구 일원에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조성사업과 연계해 3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 쇠퇴하고 있는 유성온천 지역의 재도약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도

시재생 사업이다. 또한, 구는 작년 10월 유성온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계획을 세워 올해 2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용역 수행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봉관기자



# 가팔어린이공원 '생태체험공간' 으로 새단장

## 동구, 올해 11월 완공 목표 친환경 어린이놀이공간 조성

대전 동구청장 황인호는 가양동 652-4번지에 위치한 가팔어린이공원을 생태체험공간으로 새단장하는 사업이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심 속 어린이들에게 생태체험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에서 흥

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목표로 유아놀이터, 그네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새로운 화장실과 운동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가팔어린이공원이 도심 속 어린이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도심 속 생태체험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민동새마을협의회/부녀회, 마을축제 먹거리부스 운영

대전시유성구새마을협의회(회장 임재병) 산하 전민동새마을협의회(회장 고병식), 부녀회(회장 류연희)는 지난 24일 제17회 한여름밤의 마을축제에 먹거리 부스 및 행사진행을 도우며 전민동민의 자랑거리와 주민들의 화합을 함께했다.

# "일상 속 변화를 꿈꾸는 시민들 모여라"

## 2019 사회혁신 한마당 IN-Daejeon 9월 5일부터 개최

대전시가 주최하고 2019 사회혁신한마당 추진위원회 및 대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9 사회혁신 한마당 IN-Daejeon'이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옛 충남도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상상하는 시민, 상생하는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사회혁신을 '열다', '보다', '말하다', '만나다', '경험하다', '일상이 되다' 등 총 6개 마당으로 구성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사회혁신 한마당은 최근 시대적 화두가 되는 '사회혁신' 즉, 일상의 변화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을 알리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대규모 컨퍼런스 및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된다. 첫째 날인 5일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전지역 2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대전사회혁신플랫폼 출범식',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출범식',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출범식'이 개최된다. 둘째 날인 6일에는 '미래를 품은 로컬'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시민 누구나 일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dot자리 수다', 그리고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가을밤 영화제'가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회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및 놀이 프로그램, 사회혁신 토크콘서트와 폐막식으로 마무리된다. 눈여겨 볼만한 행사는 '미래를 품은 로컬'을 주제로 한 메인 컨퍼런스다. 이날 컨퍼런스는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고 풍성한 토론장으로 펼쳐진다.

또한 우리시 소통협력공간인 '커먼지 필드(COMMONZ FIELD) 대전'에서 소통공간 컨퍼런스, 버스킹 등 풍성한 행사가 마련되며, 사회혁신 전시, 대전마을여행, 프리마켓은 상설로 운영된다. 추진위는 이번 행사 장소인 옛 충남도청이 대전형 소통협력공간 조성 예정지라는데 의미를 두고 이번 행사가 공동체와 혁신주체들이 보다 활발히 소통·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통협력공간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혁신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 3년간 총 12억 원(국비·지방비 각 6억)을 투자해 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기존의 사회혁신 활동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혁신이라는 취지 아래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다"며 "막연하게 공동체에 관심이 있던 주민이 마을활동가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혁신이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사회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일상이 바뀌는 즐거운 상상의 시간을 누리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고용노동부) 사업인 구직활동지원금은 최종확률 취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김태선 기자

#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집행

## 대전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일손부족 농가지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26일 심장병 부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1명을 투입, 시설보수, 전담 정리 등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 수혜자인 농민 서 모씨(67세)는 "일손 부족 및 본인 질환으로 농사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사회봉사대사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

로 한 해 농사를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이형재 소장은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적극 투입해 농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양이 게재해 드려라,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0월 착공

## 아산시, 국비 192억원 투입... 1일 3400톤 하수처리 가능



아산시(시정 오세현)가 오는 10월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착공한다.

둔포 지역은 둔포테크노밸리 입주, 평택 미군기지 이전, 국도43호 개통 등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유입인구가 지속

증가로 증가해 시는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둔포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둔포 공공하수처리 증설 사업을 시행해 올해 7월 평택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5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10월 착공에 들어간다.

환경부로 부터 국비 192억 36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하수처리 1일 2900톤에서 1일 2500톤을 추가로 늘려 2021년 말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규모 1일 총 3400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으로 각 가정, 식당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수를 대량 처리해 둔포천의 오염원을 감소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롯데백화점 대전점, '어글리 슈즈와 함께하는 경쾌한 일상'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손율경) 아웃도어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 매장에서 직원들이 롯데백화점과 협업해 기획한 어글리 슈즈 '트리핀 다이노(TRIPPIN DINO)'를 선보이고 있다. 경쾌하고 야생적인 공룡의 감성을 리드미컬하고 외일드한 패션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며, 332g의 경량성과 5cm 밑창으로 키 높이 효과도 볼 수 있다. 가격은 11만 9000원이다.

롯데백화점



성수품 수급상황·물가안정 점검  
전용석 대전농협본부장, 중도매인들 격려

전용석 농협대전지역본부장(왼쪽)은 추석을 대비해 지난 23일 오전 농수산물시장내 농협대전공판장을 방문, 추석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전용석 본부장은 판매장을 둘러보며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 출하물량 및 경락시세를 꼼꼼히 챙겨보는 한편, 유통최전방에서 농업인의 농산물 제값받기에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농협대전공판장 직원들과 중도매인들을 격려하고, 공판장 시설등도 둘러보았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배, 사과 등 제수용 과일의 수급문제가 예상됐으나 폭염, 태풍 등의 피해가 없고 양호한 기상이 이어지면서 사과는 지난해보다 5% 늘어난 4만9500톤, 배는 4% 늘어난 5만3000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가격 또한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용석 본부장은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원활한 농산물 수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 청양군 추석맞이 우수 농·특산물 판촉 나선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서울지역과 경기 군포시 등 12개 대도시를 방문,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판 행사에 나선다.

26일 청양군에 따르면, 군은 9월 4일부터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농·특

산물 인지도를 높이고 직거래망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자매결연도시를 중심으로 판촉활동에 나선다.

9월 4일과 5일에는 서울시 강서구청광장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 6일~9일까지 나흘간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장터에 참가한다.

이어 6일~10일까지 동대문구, 도봉구, 금천구 등 10개 대도시 소비지를 찾아간다.

이번 직판 행사는 농가가 직접 생산에서 판매까지 원스톱 유통을 추진하면서 도시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청양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며, 추석 성수품목을 비롯해 견고주, 고춧가루, 표고버섯, 과일류, 잡곡, 농산가공품 등 다양한 종류를 판매할 계획이다.

청양=정상범기자

# 공주시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기초과정 31명 수료

### 차별화된 실무교육으로 교육생들 농산물 가공 창업에 자신감 얻어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3일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기초과정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기초과정은 농산물 가공에 관심 있는 농업인 3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32시간에 걸쳐 농산물 가공 역량개발을 위한 이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교육생 총 32명 중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한 31명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이들은 앞으로 농산물가

공창업교육 심화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심화과정까지 수료하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기초과정은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 가공제품 콘셉트 개발부터 사업 인허가, 제품생산, 유통판매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 보는 등 창업실무교육 중심으로 이뤄져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박진우 수료생은 "이번 교육으로 다양한 농산물 가공기술을 익히고 농산물

가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창업을 하려면 까다로운 법적절차와 막연하기만 했던 농산물 가공사업 절차에 대해 실무적인 내용을 배우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은복 기술보급과장은 "농산물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산물 가공에 대한 기초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 농촌 소득원 발굴과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 추석 13일과 4째주 일요일 22일 쉽니다

### 아산시, 9월 중대형마트 등의 무휴업일 임시 변경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23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추석명절이 있는 9월중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무휴업일을 임시변경 했다.

유통산업진흥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로 정하고 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시 조례에 따라 매월 2회(2째주, 4째주 일요일)의 무휴업일을 지정해 실시하고 또한, 명절이 있는 달은 지난 2017년 3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결정으로 명절당일이 1일~15일 사이면 2째주 일요일과 명절당일을, 16일~31일 사이면 4째주 일요일과 명절당일을 쉬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중 무휴업일을 추석 명절당일인 13일과 2째주 일요일인 8일로 관련 업계에 안내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최근 대·내외

경기업체와 더불어 온라인몰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며 추석 직전 대목 휴일인 8일을 22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는 업계의 의견과 최근 경제전반의 상황을 감안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입을 모아 현재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가 상생하고, 특히 명절 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며 임시변경안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결정에 따라 아산시 홈페이지에 임시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이 부분을 숙지해 이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 무휴업일 적용대상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0여개소가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아산시, 전원마을 예꽃재... 에너지자립률 높아 호평

### 고효율·친환경 '특별상' 수상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2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5회 2019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은 올해로 5회째로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의 설계·시공과 건설자재 사용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기관을 시상하고 있다.

아산시는 기후변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충남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원마을 예꽃재'를 조성하면서 단열효과가 우수한 건축자재 사용 노력과 신재생에너지용·복합사업의 추진으로 에너지자립률을 인증 받는 등 모범적인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아산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기후환경네트워크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패시브 공공건축물 건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대전시티즌의 주전 수비수 이지솔

### '올림픽 대비' U-22 대표팀 발탁



대전시티즌의 주전 수비수인 이지솔(21)이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시리아와의 평가전을 위한 대표팀에 발탁됐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김학범 감독은 시리아와의 2차 친선경기를 앞두고 26일, 경기에 나설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U-20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대전시티즌의 이지솔이 명단에 포함됐다.

U-15와 U-17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후, 올해 U-20 월드컵을 통해 세네갈 전 극적인 골과 더불어 대표팀의 준우승 업적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한 이지솔은 U-22 대표팀에도 발탁되며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더 큰 기회를 갖게 됐다.

이 명단을 시작으로 김학범 감독은 목표인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첫 발 걸음을 뗐다. 이번에 발탁된 U-22 대표팀은 내달 2일 서귀포에서 소집해 이번 친선경기를 준비한다.

1차전은 9월 6일 오후 8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며, 2차전 역시 9월 9일 오후 8시 같은 장소인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김정환기자

### 따뜻한 청양 공동체, 다함께 만들어요

청양군, 지역리더상생발전 역량강화교육 실시



새로운 마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청양군민들의 학습열기가 뜨겁다.

청양군(군수 김동곤)이 지난 22일 정산면을 시작으로 29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며 열고 있는 '지역리더 상생발전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면서 지역현안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참여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 이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기관단체장 등 지역 리더들로 이들은 그동안 지역을 위해 각분야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해왔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상호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 강의를 '공동체 세움' 복권승 대표가 맡아 ▲마을 공간에

대한 이해 ▲리더십 ▲신뢰와 합의 연습 ▲상호간 이해하기 ▲지역 발전방향 설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복 대표는 특히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을 이해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자유 토론시간을 가지면서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날 교육에 참석한 오광순 정산면주민자치위원장은 "평소 단체별로 각각 회의를 진행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적었는데 오늘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 교육을 들으니 주민 간 공동체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지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위조상품 적발 1위 화장품·2위 건강식품

### 특허청, 추석계기 '작통 Out 정품 Ok' K-브랜드 보호 설명회 개최

지난 7월말 특허청 블로그 등에 게재된 '작통 송풍기 마스크팩 제조조#12539;유통업자 단속' 소식에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의 공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블로그 이용자 조\*\*은 '여자 친구에게 마스크팩 많이 사줬는데... 이런 작통 구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올린 M\*\*21은 '작통인지는 대체 어떻게 아는 거죠?'라며 작통 구별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냈다.

특허청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동)에서 일반 국민과 특허청 지식재산정책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위조 상품 유통실태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정품 사용을 통한 올바른 소비문화'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정품·작통 구별을 위한 '작통 Out, 정품 Ok' 체험행사를 병행한다.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단속현황에 따르면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78만8천298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명절선물로 인기가 높은 건강식품이 64만2천573점으로 다음 순위들이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을 이용한 판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단속\*도 2014년 5천802건에서 2018년에는 무려 6천406건으로 늘

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특허청과 관세청의 정책기자들과 경찰청 블로그 기자들이 참여하여 취재기회를 시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여 위조상품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강의 내용 등 이번 행사의 주요내용은 특허청 유튜브 방송 <4시! 특허청입니다>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충남도 초·중·고  
졸 검정고시 787명 합격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7일 시행한 2019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검정고시는 1113명이 응시하고 787명이 합격해 평균 합격률 71%를 기록했다. 응시분야별로는 초졸 63명(합격률 89%), 중졸 119명(합격률 82%), 고졸 605명(합격률 68%)이 합격했다.

최고득점의 영예는 전과목 만점을 기록한 초졸 응시자 이 모 군(11세, 남)의 4명, 중졸 석 모 군(14세, 남), 고졸 이 모 양(16세, 여)의 3명이 차지했다.



### 당진시립도서관, 두근두근 책 버스 휴관

새 단장 위해 이달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운행 중단



당진시립도서관은 두근두근 책 버스의 새 단장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9월 7일까지 휴관한다고 밝혔다.

두근두근 책 버스는 약 3000여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일종의 이동식 도서관으로, 평소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책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재정부 기금 지원에 힘입어 도서 1만여권, 이파르트와 당진시청사, 당진시 보건소, 대동다솜이파트, 군부대에 책 버스가 운영되지 않는다.

두근두근 책 버스 휴관과 운영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립

도서관(☎041-360-68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휴관 기간 동안 책 버스를 재 정비하고 외부 디자인도 새롭게 할 계획"이라며 "새 단장 이후 더 개선된 서비스로 시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립도서관은 두근두근 책 버스 외에도 병의원과 카페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틈틈이 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롯데마트에는 신개념 무인자동화 대출반납시스템인 스마트 무인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생명존중도시대전 만들기 이제 시작입니다"

9월 2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서 생명존중도시대전 선포식

대전시는 내달 2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2019년 세계지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존중도시대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세계지살예방의 날은 매년 9월 10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회(IASP)가 2003년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식전공연에 이

어서 1부에서는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표창 수여와 생명존중도시 대전 선포식(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선언문 낭독, 수건 세레모니, 레이저쇼)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자살예방 실무자들의 소진예방과 공감을 위한 하삼옥 시인의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관·군·학·종교계가 한뜻으로 준비한 생명존중도시 대전 선포식은 자

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자살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포식은 대전시민(청소년, 대학생,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살 예방 센터 홈페이지(www.djpmhc.or.kr)나 전화(042-486-0005 내선1번)로 하면 된다.

김태선기자

### 공주시, 빅데이터 통해 CCTV 설치 우선지역 44곳 선정

여성인구 및 단독주택 밀집도를 고려한 기준치 포함



공주시(시장 김경섭)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표준 분석모형을 활용해 관내 CCTV 우선 설치지역 44곳을 선정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CCTV 설

치 위치 선정시 보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이뤄졌다.

이를 위해 시는 공주시 전 면적을 총 9만 247필로 나눈 뒤 감시취약지역과 범죄취약지역에 여성인구 및 단독주택 밀집도를 고려한 기준치를 포함시켜 CCTV 설치지수를 산정했다.

그 결과 CCTV 설치지수가 15점 이상인 최우선 설치 등급은 11곳으로 유구와 계룡, 금학동이 각각 2곳, 반포와 우성, 사곡, 중학동, 웅진동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고, 13점 이

상인 우선 설치 등급은 33곳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 같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44곳의 CCTV 우선 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앞으로 CCTV 설치 사업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용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CCTV 실제 감시 반응 및 범죄발생현황, 유동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보다 상세한 결과를 산출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요르단 수자원 개발 및 관리' 국제교육 진행

한국수자원공사, 요르단 물관리 관련 부처 공무원 20명 대상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요르단 물관리 관련 부처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요르단 수자원 개발 및 관리' 국제교육을 진행한다.

요르단은 국토의 80%가 연간 강수량 200mm 이하인 사막지역으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다. 지하수의 존도와 상수도 누수율이 높아 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교육 내용은 요르단의 물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물관리 정책 수립부터 누수를 관리까지 이론과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요르단의 사막한 물 문제인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한국 수자원공사의 상하수도 관리 전문 교육시설인 '수도관망교육센터'에서 누수 탐사와 복구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사례와 댐 및 상수도, 지하수 등 수자원의 효과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한다.

박봉관기자

### 조폐공사, 군산시·군산대와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産·學·官 업무협약



한국조폐공사는 26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군산시 및 군산대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산·학·관

(産·學·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인재 추천을 통해 선발된 체험형 인턴('지역사랑 서포터즈')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각 기관의 특성과 핵심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군산시 및 군산대와 협력, 체험형 청년인턴에게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기술지원 등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각 기관의 핵심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협력 방안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군산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요) 형태의 '군산사랑상품권'을 공급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도 9월 초 서비스할 예정이다.

조폐공사는 최근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 등 지역대학과 우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송병배기자

### '보완대체(ACC)의사소통 도구의 적용 실제 특수교사 연수' 실시

금산교육지원청,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대상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은 26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활동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35명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의 적용 실제 특수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보완대체의사소통의 교실 환경 및 수업 내 구체적인 활용 방법, 보완대체의사소통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져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태연 교육장은 "보완대체의사소통 관련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맞춤 특수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법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수업 역량을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보완대체의사소통의 교실 환경 및 수업 내 구체적인 활용 방법, 보완대체의사소통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져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태연 교육장은 "보완대체의사소통 관련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맞춤 특수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올해 난폭·보복운전 크게 늘어

## 경찰 내달부터 집중 단속... 난폭운전 작년 대비 51%, 보복운전 16% 증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난폭·보복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청이 난폭·보복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 등에 대해 26일부터 2주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을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난폭운전 사건 처리 건수는 5255건, 보복운전은 30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1%, 16.2%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찰은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임행순찰차와 드론도 동원

될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차·지방경찰청·경찰서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불시 음주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스마트 국민체' 어플리케이션에는 난폭, 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도 마련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등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오는 9월 1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화재취약시설의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테마별 불시 단속, 안전피그그램 스티커 배부를 통한 피난시설 안전관리 강화, 홍보,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화재특별경계근무 등이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추석연휴 대비 화재취약시설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며 "서산 시민과 귀성객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행복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서산소방서, 추석연휴 화재안전대책 추진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오는 9월 1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화재취약시설의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테마별 불시 단속, 안전피그그램 스티커 배부를 통한 피난시설 안전관리 강화, 홍보,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화재특별경계근무 등이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추석연휴 대비 화재취약시설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며 "서산 시민과 귀성객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행복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광고문의  
(042)538-3030



서천소방서, 한철로 생명나눔 실천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23일 소방서를 방문한 대한적십자사이동식 한철버스에서 생명나눔과 이웃 사랑의 실천 일환으로 '사랑나눔 한철운송'에 참여했다.



당진소방서, 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수어 당진소방서는 소방청이 올해부터 3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대원 김대섭 소방교, 이기표 소방교 등 2명이 '트라우마 세이버'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3대 인증제도는 브레인 세이버(급성 뇌졸중), 트라우마 세이버(중증외상), 하트 세이버(심정지)이다.



공주소방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소방안전교육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지난 23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및 관계자 총 3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선문대, '나와 너, 다(多)함께' 프로그램 운영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24일, 선문대학교 본관510호에서 선문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윤기용),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삼혁), 류승임심리상담연구소(소장 류승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다문화포레관계항상 프로그램 '나와 너, 다(多)함께'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온천2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Boycott Japan 가두캠페인 대전시유성구새마을회(회장 임재병) 산하 온천2동새마을협의회(회장 오영환), 부녀회(회장 유미숙)는 지난 24일 새마을지도자 20명이 장대4거리와 장날맞은 유성시장 일대를 거리행진하며 NO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Boycott Japan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김원웅 광복회장

## '동해 영토수호훈련' 지지 성명

광복회는 26일 김원웅 광복회장의 '동해 영토수호훈련' 지지 성명을 내고 "신성한 우리 땅 독도를 비롯한 영토수호의 단호한 의지를 내외에 표명하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영토리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일본의 태도는 아직도 제국주의적 영토약탈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훈련으로 문제인 정부가 표명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민족의 군대'로서의 당당한 국군의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송병배기자

## 온라인 영어강의 '정보 및 콘텐츠 품질' 높고 '학습관리' 낮아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온라인 영어강의에 대한 '정보 및 콘텐츠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학습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선택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4개 사업자의 온라인 영어강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자 1,000명의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소비자 만족도는 온라인 영어강의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상품 특성, 호감도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서 평가했다.

종합만족도는 소비자 만족도의 3개 부문인 서비스 품질 만족도, 상품 특성 만족도, 호감도의 중요도(가중치)를 반영한 평균값으로, 조사대상 4개 온라인 영어강의 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61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뇌새김 3.69점, 아나두 3.67점, 시원스쿨 3.59점, 스피킹맥스 3.44점 순이었다.

2017년도와 비교해 뇌새김(+0.44점), 아나두(+0.09점), 시원스쿨(+0.15점), 스피킹맥스(+0.05

점) 등 4개 사업자 종합만족도 점수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질 만족도는 평균 3.63점이었고, 사업자별로는 뇌새김 3.69점, 아나두 3.68점, 시원스쿨 3.62점, 스피킹맥스 3.47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 특성 만족도는 학습관리, 정보 및 콘텐츠 품질, 이용편리성 및 혜택 등 3개 요인으로 평가했는데, 정보 및 콘텐츠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77점으로 종합만족도보다 높은 반면 학습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46점으로 낮았다.

## 행안부,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 4대 적발 고발조치

###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불시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불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70만 여대 중 검사에 불합격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20837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점검결과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 4대를 적발해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및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적발된 승강기는 검사 불합격 1대, 검사 미신청 3대로 단속 주택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이다. 검사에 불합격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발건수는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매년 지속적인 전수점검과 더불어 위험사항에 대해 기존 지자체에서 고발하던 것을 작년부터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직접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운행정지 표시가 훼손되어 있는 경우 등 806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운행정지 표시 미부착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929건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조성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승강기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청양소방서,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 소방안전대책 총력

### 주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총력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회)는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가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청양읍 백석간강공원에서 펼쳐짐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중 많은 관광객과 주민이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방서는 군청 관계자와 함께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교육, 물소화기 체험, 이동형 119안전체험차량을 배치해 관광객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청양군의 대표 축제인 만큼 축제기간 동안 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119소방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세종시, 26일부터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실시

### 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 확인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2주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시와 환경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품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 의심제품은 제조사에 대해 검사명령을 함은 물론,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

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태선기자

## 2019년 양성평등 홍보 교육 진행

### 아산시 도시계획과, 관내 용역업체 관계자 대상

아산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 도시계획위원 및 관내 용역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양성평등 홍보 교육을 진행했다.

도시계획과는 시민들이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참여하는 각계의 시민전문가 및 관내 업체관계자에게 양성평등 홍보 동영상 상영 및 교육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사회 및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양성평등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기에 이번 홍보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별평등 해소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피난대피 우선 훈련·교육 중점 추진

### 논산소방서, 화마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네 글자 '대피 먼저'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는 소화기 사용법 등 초기 화재진압에 치중했던 기존의 소방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피난대피 우선 훈련·교육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화재 통계에 의하면 최근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사상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며,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화재 건

수는 전년 대비 4.2%(1841건) 감소했으나 사상자는 17.9%(394명) 증가했다. 이는 급격한 연소확대 시 행동요령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못 인식한 탓으로 인한 대피 지연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소방청에서는 소화기 사용법 등 초기 화재 진압에 치중했던 기존의 소방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화재 발생 시 대피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변경하고 있다.

논산소방서에서도 화재 발생 시 피난우선을 위한 홍보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각종 캠페인 및 소방안전교육 시 소화기, 주택용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과 더불어 대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방침이다.

논산=김성규기자

# 文 대통령 “시간강사 고용유지 앞장서 달라”

## 국립대 총장들에 시간강사 고용유지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들에게 시간강사 고용유지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강사 처우개선과 교원지위 부여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1일 시행됐지만 되레 대학들은 강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강사들의 일자리를 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 청와대에서 연 국립대 총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지는 않지만 대대적으로 강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강사들의 일자리를 뺐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감소율이 사립대에 비하면 국립대가 현저히 낮음에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립대의) 노력을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강사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 기술 혁신을 위한 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기술의 국산화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 했다”며 “지금 여러 대학들이 기술지원단이나 개발지원단을 만들어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대학이라는 점을 들어 “각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들이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필요한 미래융합형 연구와 인재양성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학문 간 또는 전공 간 심지어는 문과, 이과 같

신의 중심이 되려면 산학협력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교원들의 공공부문 또는 특정 분야의 겸직이 가능했다면 한다”라며 교원 겸직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이상경 경상대 총장은 “정부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 소재·부품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라도 실현의 노후화된 기자재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정 투자를 강조했다.

김남경 경남과기대 총장은 “국가 균형 발전은 교육 균형 발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며 지역인재 채용목표 비율을 30%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인 김영섭 부경대학교 총장은 “국립대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4차 산업은 물론이고, 그 길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부품·소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력 양성과 기초과학기초연구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립대학들의 순수한 열정과 도전에 대통령님의 큰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자신만만’ 캠프

대전 청소년위캔센터에서 관내 중학생 40명 대상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 We캔터는 23일 대전 청소년위캔센터에서 관내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자신만만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또래와 함께하는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기회를 확대하여 자신감을 고양하고, 또래관계 증진과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자신만만 캠프’는 대전 청소년위캔

센터 내 16개의 직업체험관중 관심분야의 직업 3가지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여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진구 교육과장은 “자신만만 캠프를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자존감을 증진시켜 또래관계 향상 및 학업증진 등 일관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논산=김성구기자

# 아산시 학생연극, 뮤지컬 축제 개최

관내 초·중·고등학교 13개교 총 14개 작품의 아름다운 공연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은 오는 9월 22일부터 6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13개교 총 14개 작품의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지는 ‘아산시 학생연극, 뮤지컬 발표 축제(이하 연극 축제)’의 장을 아산시 평생학습관 공연장에서 연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산연극축제는, 충남차원으로 확대되어 올해는 충남학생연극축제의 아산지역 발표회와 예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연극 축제는 작년 아산남성초와 연미초가 참여하여 초중고를 아우르는 상징성을 가졌는데 올해도 연속 참여하여 의미를 더하고 있다.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7개교, 고등학교 연합동아리 ‘들불’이 참여하여 총 13개교, 14개팀이 공연과 교류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아산연극축제는 ▲9월 22일 17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18시 배방고의 ‘미라클’ 개막공연, 연합연극단 들불의 ‘수상한 흥신소’ ▲9월 3일 16시 30분 설화고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18시 배방중 ‘사춘기 메들리’, 19시 30분 은양고 ‘종이비행기’ ▲9월 4일 16시 30분 탕정중 ‘라온누리’, 18시 온양여중 ‘드림하이’ 19시30분 한울중 ‘위대한 쇼맨’ ▲9월 5일 13시 30분 연미초 ‘별주부전 두 번째 이야기: 눈먼 심장이’, 14시 30분 아산남성초 ‘교실에서 찾은 희망’, 18시 아산고 ‘마지막 간수’ ▲9월 6일 16시 30분 온양고 후산부동구서, 18시 충남삼성고 ‘당신의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19시 30분 충남의고 ‘환골탈태’를 끝으로 20시 30분 폐회식을 갖는다.

아산=리량주기자

# 2학기부터 고등학생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

세종시교육청, 고등학생 1인당 최대 약 216만 원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한 세종시교육청이 2019년 1학기 발 빠르게 교육, 수학여행비를 무상화한데 이어 이번 2학기부터 고교 교육비까지 지원하면서 명실상부 ‘무상교육 시리지’를 완성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방법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2019년 3학년 ▲2020년 2,3학년 ▲2021년 1,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번 무상 교육비 시행으로 세종시 전체 18개 공·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2,957명에게 1인당 약 58만 원의 혜택

이 돌아갈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총 17억 2,833만 원(수업료 13억 3,401만 원, 학교운영지원비 3억 942만 원)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전액 지원한다.

향후 무상교육에 소요될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소요액의 47.5%씩을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고, 시정에서 5%를 부담할 계획이다.

이번 무상 교육비 지원으로 세종시에 고등학생 자녀 1인을 둔 가정을 1년 동안 급식비(1식×5,170원×190일 = 98만 원), 교복비(1회 30만 원), 수학여행비(1회 30만 원), 교육비(1년 58만 원)로 최대 총 216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종=김태선기자

# 대전시교육청,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실시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탐방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중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문화탐방은 세계 속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로 세 번째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상해임시정부청사와 홍구공원 윤봉길의사 기념관을 탐방하여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으며, 상해한국학교, 상해역사

박물관, 주가각 수향마을, 송성민속촌 등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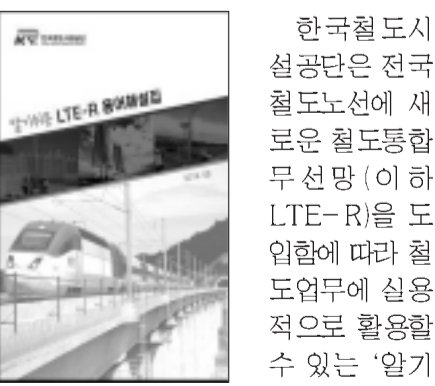
한편, 학생들의 안전과 자기주도적 탐색활동을 위해 지난 8월 7일과 19일에 안전교육과 사전 탐색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해외탐방 종료 후에는 결과발표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해외문화탐방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되며, 이번 탐방을 통하여 큰 꿈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알기 쉬운 철도통합무선망 용어해설집’ 발간

철도공단, 그림과 도표 추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용어해설집’을 26일 발행하고, 철도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LTE-R은 LTE 기술로 통신방식을 단

일화한 시스템으로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상호 간, 열차와 관제센터 간 그리고 유지보수자 간의 정보교환 시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어해설집에는 ▲ 철도무선통신시스템 기술발전, ▲ LTE-R 시스템 구성도, ▲ 주요용어 100개 해설 등이 수록되어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전식으로 정리했으며, 그림과 도표를 추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편집했다.

철도공단 박민주 기술본부장은 “해설집 발간을 계기로 LTE-R 기술이 철도산업에 정착되어, 열차안전운행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사산 부석중, 진로창업교육 실시 부석중(교장길준용)은 지난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관교에 있는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진로창업 교육을 실시했다. 우선 학생들은 스타트업 캠퍼스를 투어하면서 스타트업 캠퍼스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탐색했다. 그런 후 총 9개의 모듈로 나누어 각 모듈별로 스타트업 창업 사례를 활용하여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 당진중, 춘천 전국 관악경연대회 금상

관악합주부, 아름다운 금빛 선율이 울려 퍼져

당진중학교교장 양낙준) 관악합주부 학생들이 제17회 춘천 전국 관악경연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7회 춘천 전국 관악경연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초등 22팀, 중등 31팀, 고등 21팀, 총 74개 관악연주단체가 참가했으며 당진중 관악 합주부는 지정곡(블루스카이), 자유곡(Cavetowns Cappadocia)을 연주해 중등

부 ‘금상’을 당당히 수상했다.

당진중 관악부는 1968년에 창단이 되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중단된 후 1993년에 36인조로 재창단되어, 현재 관악부 71명, 현악부 42명, 총 113명의 관현악부로 구성되었으며, 전국 관악경연대회에서 15회 금상, 2회 대상을 수상했고, 충청남도 학생음악 경연대회에서는 금상 18회를 수상한 명실상부히 충남을 대표하는 관악합주단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다문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토론회 가져

천안교육지원청, 초·중·고교 교사 20명으로 구성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소속 초·중·고교 교사 20명으로 구성된 ‘천안 다문화 전문적 학습공동체’(이하 다문화학습공동체)는 26일 천안시립고등학교에서 8월 학습공동체 토론회를 가졌다.

다문화 전문성 신장을 통한 다문화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 연구모임인 ‘다문화학습공동체’는 수업 나눔과 공유를 통한 비교과 다문화수업의 질적 제고와 다문화가정 학생 수업 방법 개선 연구 및 다문화가정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문화 인식개선

과 수용성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연구와 교과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고,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영화 감상 후 토론회활동 등이 이어졌다.

허삼복 교육장은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통한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로 학교 현장에서 우리 사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문화학생의 장점을 살리는 맞춤형교육이 이뤄져 다문화학생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북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는 23일 오전 11시 ‘긴급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10월 15일 예정된 3학년 일본 체험학습 재검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일본 체험학습을 취소하고 국내 체험학습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천북중학교는 2015년부터 “세계로 비상하는 꿈과 의지”를 목표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체험학습보다 국내 체험학습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이효성 천북중학교 운영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격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전 국민적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우리 천북 교육가족이 힘을 모아 국내 체험학습을 교육적으로 계획하여 좋은 교육적 성과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북중학교 학생회(회장 임지원은)는 여름방학이 끝난 직후 3학년 다모임을 열어 10월 일본체험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3학년 다모임 회의에서 학생들 간 많은 의견이 오갔고 회의 결과 머거린 안전 문제와 현재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 체험학습을 취소하지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학생자치부에서는 이 같은 학생들의 다모임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알렸고 학부모들도 모두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지지 의사를 보였다.

보령=김정미기자

천안교육지원청, 자유학년제 운영 내실화 워크숍 열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신경희)은 22일 2학기 교육과정 정책 공유 및 참학력 교육과정 실천을 통한 자유학년제 내실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워크숍에는 초·중·고교감 27명이 참석했다.



● 특 정 ●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



양승조 충남도지사= 27일 오후 6시 부여 유스호텔에서 열리는 제21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에 참석.

제57회 임시회 개최식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2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57회 임시회 개최식과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6시 30분 세종NK병원에서 열리는 세종문화예술단체 연대 창립총회에 참석.

빛으로 봉사단 발대식



황선봉 예산군수= 27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자원봉사센터 '빛으로 봉사단' 발대식에 참석, 오후 3시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제23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 참석.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 회의



김석환 홍성군수= 27일 오후 4시 군청회의실에서 열리는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 회의에 참석.

시정3기 공약 평가 검증 세종시 시민배심원단 운영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시정3기 공약 이행에 대한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을 위해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

시는 26일 시청 세종실에서 이춘희 시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시민배심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정3기 공약이행 평가 및 조정을 위한 시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단은 지자체의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등 공약 이행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시민배심원은 총 50명이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만16세 이상의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ARS)을 통해 선별했다.

이날 1차 회의는 시민배심원 위촉장 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시민배심원제 관련 기본강의, 본인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배심원 회의는 오는 9월 9일과 23일에 두 차례 더 진행되며, 공약이행 설명회, 공약 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의는 물론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공약은 세종시민과의 실천 약속으로,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공약의 이행 여부를 검증받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민배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공약의 내실 있는 이행과 제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올해 2년 연속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시도지사 공약평가'에서 최우수등급(SA)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을 가장 잘 만든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홍성군, 20개 기업체 유치 군정 사상 최대 성과

충남도도 빛난 기업유치 실적 'A+'

충남 홍성군이 민선 7기 기업 5개와 MOU 체결 등 20여개의 기업체 유치에 성공하며 군정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홍성군 지역주요통계에 따르면 2012년 사업체수 6,612개 종업원수 24,884명 대비 2016년은 7,927개, 36,641명으로 기업유치 실적 관련 지표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전체와 대비해 봐도 충남도가 동기간 사업체수가 145,998개에서 161,612개로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홍성군의 경우는 약 20%가 증가하며 약 두 배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충남 지역 기업유치 실적 확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포첨단산업 1호 기업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한양



로보틱스가 지난 5월말부터 본격 기동을 시작했다. 동양테크원을 비롯한 3개 기업도 9월까지 잇따라 첫 삽을 뜬 계 획이다. 이들 4개 기업체 투자 금액만 210억에 이르며 고용창출인 원은 약 200명에 이른다.

특히 일본에서 외국인투자자금 미화 880만 불을 유치하였으며, 이는 첫 외자유치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또한 조성 중인 내포첨단산업단지는 7월 기준 7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7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현

각시·군과 '인구감소시대' 선제적 대응

충남도, 제4회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개최

충남도는 26일 국립부여박물관에서 2019년도 제4회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부시장·부군수, 시·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현안과제 토의, 협조사항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도와 시·군은 '정책협업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을 주제로

시·군별 우수사례 발표와 토의를 펼쳤으며, 시·군별 도정 현안과 시·군별 건의·요청 사항을 공유하고 협조코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생활 밀착형 인구증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도와 시·군 협업체제를 발 광하는 등 행정 사례 중심의 활발한 토의를 통해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도정 현안 해결과 도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내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대일 수입기업 위기 극복과 혁신도시 지정, 서해선-신안산선 직결을 위해 전 시·군이 함께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 실시

예산군, 환경오염 사전 예방위해 3단계로 추진

예산군은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로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9월 초부터 20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감시활동은 연휴기간 사업장 및 단속기관의 휴무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배출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1단계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환경 관련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진행한다.

2단계는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별감시상황실'을 설치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마지막 3단계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로,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이번 특별감시기간에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인 위반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활동이 기업체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연휴기간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자율 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구 기자

충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역대회 개최



충남도가 지역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해를 높이고, 복지전담체제의 혁신을 이끌 사업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도는 26일 부여롯데리조트에서 '2019년 충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대회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행복한 대한민국 중심 충남'이라는 구호 아래 지역 사회 복지 최일선 현장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내 15개 시·군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 이번 대회는 유공자 표창, 특강, 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대회에 앞서 진행된 유공자 표창에서는 ▲아산시 실무협의체 이세용 위원장 ▲서천군 실무협의체 주경아 위원장 ▲예산군 협의체 방은영 사무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주

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박경원 서기관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강의했으며, 한시대 이만교 교수가 '인문학으로 풀이하는 지역사회' 특강을 펼쳤다.

또 호서대 이용재 교수가 수요자·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에 대한 찬양 시 사례를 발표하고, 수행방법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도내 6000여 명의 협의체 위원들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튼튼한 연결고리"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어려운 이웃의 관계를 이어주는 복지공동체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연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일선 현장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복지 증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도담동 '마중물도담은행' 대출사업 본격 추진

기초수급자 20명·무이자·무담보·무보증 30만 원대출

세종시 도담동(동장 홍연숙)이 세종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6일부터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는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마중물도담은행' 대출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이채원) 6번째 특화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자금으로 담보, 보증인, 이자 없이 상환기간인 1년 이내에 30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출신청은 오는 9월까지이며, 도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출용

도와 상환의지 계획을 확인한 후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 대출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도담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민들이 지정기부금한 기부금으로 대출사업이 운영되며 대상자가 상환한 금액은 다시 다른 나눔 사업에 활용된다.

홍연숙 공공위원장도 "마중물도담은행이라는 사업명처럼 3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자립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추진

예산군, 내포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기념



예산군은 예산을 관장리 288-9번지 동학공원 내에 군비 5억원을 투자해 내포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탑을 건립하고 주차장 포장, 화장실 조성 등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동학농민 혁명은 1894년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고 외세를 몰아내 패망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농민 운동이며, 군은 충남지역 최초 관공과 격전지이자 대승지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조성해 관장리 전부를 기념하고 있다.

동학농민기념사업회(회장 박성묵)는 지난 7월 지역 언론에 '예산군동학농민혁명기념탑 공모 평가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기념탑 조형물이 표절이라는 주장의 광고를 내보낸 바 있다.

그러나 군이 한국저작권위원회 회장 출신 오승종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협상 1순위 업체의 기념탑은 표절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의견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민족의 혼'이라는 제목으로 모형 조각품 및 설계도의 저작권 등록을 마쳐 저작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군은 원활한 기념탑 건립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 동학농민혁명 기념탑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동학농민기념사업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현상공모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동학농민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며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성구 기자

전동면 앞개굴소하천 정비 사업 9월 조기착공

총 사업비 47.3억 투입·범람우려 해소·정주여건 개선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2020년 착공 예정이던 전동면 보덕리 일원 앞개굴소하천 정비 사업을 이번 달에 조기 발주해 9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7억 3,000만 원(국비 50%)을 투입, 조천천과 합류 지점부터 1,666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9월초까지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농번기를 피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소하천정비공사 보상협의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조기에 공사를 발

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범람을 우려하던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마을안길로 이용 중인 소하천 제방길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편의와 농경지로의 접근성이 향상돼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동정

8월 중 화요일



김홍장 당진시장 =27일 오후 5시 30분 당진시청 해 나루 홀에서 열리는 8월 중 화요일에 참석.

현장군수실



가세로 태안군수 =27일 오후 1시 소원면사무소에서 열리는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군수실'에 참석.

보고회



김돈곤 청양군수 =27일 오후 4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농촌신활력플러스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

‘농촌주택개량사업’ 적극 추진

태안군, 4억 5천만 원 들여 빈집정비·슬레이트처리·지붕개량 추진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 실현하고 정주욕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태안군이 적극 나섰다.



태안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 지원 외에 중남 건축사회·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축 설계비 및 측량 수수료를 30% 할인해주고, 연면적 150㎡ 이하 신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까지 감면한다.

태안=김정환기자

아산시 신창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완료구간 조기 포장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신창 신달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구간 중 통행량이 많은 신창면 소재지 인근 관로매설을 완료해 주요도로 구간의 전폭포장 복구공사를 조기에 추진한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신창 신달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구간 중 통행량이 많은 신창면 소재지 인근 관로매설을 완료해 주요도로 구간의 전폭포장 복구공사를 조기에 추진한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신창 신달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구간 중 통행량이 많은 신창면 소재지 인근 관로매설을 완료해 주요도로 구간의 전폭포장 복구공사를 조기에 추진한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신창 신달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구간 중 통행량이 많은 신창면 소재지 인근 관로매설을 완료해 주요도로 구간의 전폭포장 복구공사를 조기에 추진한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신창 신달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구간 중 통행량이 많은 신창면 소재지 인근 관로매설을 완료해 주요도로 구간의 전폭포장 복구공사를 조기에 추진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필경사에 독립지사 후손들 모인다

당진시, 이달 30일 심훈선생 83주기 추모제에 참석

당진시는 이달 30일 당진 필경사에서 진행되는 제83주기 심훈 추모제에 심훈 선생과 인연이 있는 독립지사들의 후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심훈 선생(1901~1936)은 소설 상록수를 집필한 문학인으로 유명하지만 1919년 3.1운동에 참여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8개월 간 옥고를 치르고, 저항시 ‘그날의 오면’과 ‘뚝구속에서’ 등을 남긴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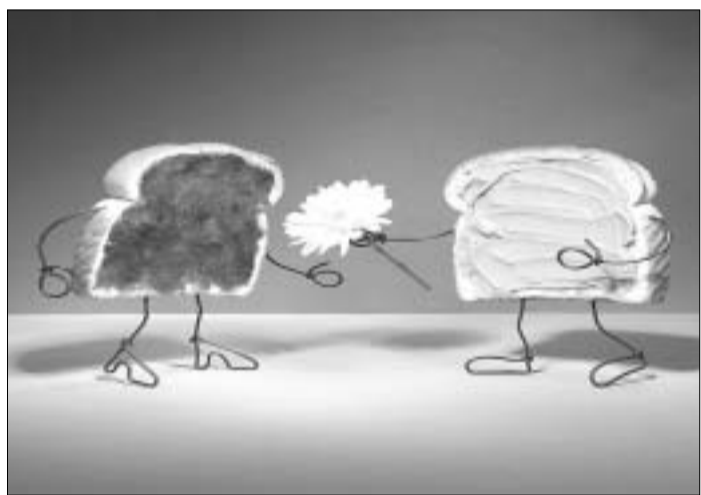
심훈 선생은 생전에 많은 독립운동가와 인연을 맺었는데 올해 추모제에는 그들의 후손 및 기념사업회 관계자 9명과 이준식 천안 독립기념관장이 참여하게 됐다.

추모제에 참여하는 후손들의 독립운동가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인 권기옥 지사와 일왕에게 폭탄 투하를 모의한 박열 선생, 어린이 운동의 창시자 소과 방정환 선생,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 의열단의 선연서인 ‘조선혁명 선언’을 지은 단재 신채호 선생, 임시정부 선전부장을 지낸 일파 엄항섭 선생,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등을 조직한 몽양 여운형 선생, 신홍 무관학교를 설립한 우당 이회영 선생, 여성 농촌 운동가이자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인 최용신 선생이다.

이중 권기옥 지사의 경우 올해 심훈기념관에서 권 지사가 심훈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만장이 발견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오는 30일 심훈 선생 추모제에 참여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심훈 선생이 그들을 위해 남긴 문학작품을 낭송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꺼이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테리 보더의 유쾌한 ‘상상’

당진에서 ‘먹고·즐기고·사랑하라’ 전시회 열려

당진 문화재단은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비나미술관이 기획한 ‘테리 보더(Terry Border) -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 전시회를 이달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관에서 선보인다.

1966년 미국 출생의 테리 보더는 철사를 이용해 음식과 사물에 팔다리를 붙여 인격화된 캐릭터를 창조하는 사진가이자 메이커, 아티스트다.

그의 작품에는 빵, 과자, 계란, 과일, 수저, 손톱깎이, 립밤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나 사물이 등장한다. 그는 이런 익숙한 소재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외견상 연관이 없어 보이는 요소들을 연결해 평범한 사물에서 우리의 삶과 일상을 발견하는데 능하다.

특히 테리 보더 예술세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벤트아트 는 관람객의 흥미 유발과 감정 이입, 공감대 형성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다.

또한 테리 보더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 소통방식 중 하나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작가다. 대표적인 사례로 꼬마 흰 계란이 ‘Colored Only’라고 적힌 부활절 계란 바구니 앞에서 슬퍼하는 장면을 담은 작품 ‘황마 계란’은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풍자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테리 보더의 대표적인 사진작품뿐만 아니라 입체작품, 애니메이션과 메이킹 영상까지 테리 보더의 예술세계를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온양3동, 소원갈국수에서 어른식 무료 식사후원 제공 아산시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형권)는 지난 24일, ‘소원갈국수 전 전문점’(대표 원영옥)에서 온양3동의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북돋아줄 보리밥정식을 제공했다.



탕정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아산시 탕정면 주민자치회(회장 한중태)는 지난 23일, 제8회 탕정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탕정면민의 화합과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오세현 시장, 강훈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식전행사인 풍물공연부터 열기를 더했으며, 의식행사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본 행사에서는 합창, 방송댄스, 벨레, 벨리댄스, 리듬줄넘기 등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지난 1년간 구슬땀을 흘리며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뜻깊은 자리로 전개됐으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엔딩 공연으로 선보인 난타 공연에서는 신명나고 화려한 무대를 펼쳐 방문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중태 회장은 "올 9월로 임기가 완료되는 마지막으로 주최하는 행사에서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감사하며 주민자치를 위해 노력하신 주민자치 임원 및 위원님들과 오늘 프로그램 발표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연습에 매진한 수강생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1층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내실화 모색

청양군(김돈곤 군수)이 ‘농촌정책 및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워크숍을 열고 농업분야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관 소공연장에서 농촌경제연구원 송미영 박사를 초빙해 열린 워크숍에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지방재정이 양사업에 따라 시행될 ‘농촌협약

제도’ 등이 소개됐다. 청양군은 1기와 2기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3기에서는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나

설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다움복원 등 일부가 지방재정이양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농식품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선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온양1동 행복키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 캠페인



온양1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장일권)은 지난 23일, ‘온천천 작은

음악회’행사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행복키움추진단 20여명이 참여한 홍보 부스에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무료 커피를 나누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장애인등급판정제도 변경, 긴급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정보를 리플렛과 홍보물품(물티슈)을 활용하여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행복키움추진단 소식지를 배부하여 나눔 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후원방법을 공유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해수욕장 올해 221만 명 방문 전년 대비 31% 증가

조기개장 등으로 전년보다 방문객 52만 8천여 명 증가



‘서해안 대표 관광휴양도시’ 태안 해수욕장들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주 일제히 막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관내 28개 해수욕장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보다 31.2%(52만 8,480명) 증가한 총 221만 7,35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군은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만리포 해수욕장 조기·야간개장 및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국내 여행객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6월 1일 조기개장한 만리포 해수욕장은 9만여 명이 몰렸으며, 야간 해수욕과 함께 다양한 버스커디제인(쇼) 등을 즐길 수 있는 야간개장(오후 10시까지)에도 55만여 명이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또한 같은 해 해수욕장에는 외국인 관광객 3,500여 명이 몰려 추후

외국인해수욕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군은 앞으로 피서형태와 여행패턴 등의 트렌드가 다양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그에 따른 콘텐츠 개발에 힘쓰는 한편, 해수욕장의 쾌적한 이용 여건 조성을 위해 ▲바가지요금 개선 ▲젊은층을 위한 먹거리 개발 ▲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 ▲해수욕장 전담부서 신설 ▲만리포해수욕장 ‘차없는거리’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빅데이터로 관광객들의 숙박·소비성향, 경제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실사구시 맞춤형 관광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일 예정이다.

태안=김정환기자

우리/동네

###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나서

이달부터 17개소 대상 위생관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계룡시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적극 나섰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식 확산과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착한가격업소 가격표시 홍보물 ▲전문 위생업체 위탁 위생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정 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과 지원시책을 발굴, 착한가격업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시 관계자의 현지 실사 및 평가를 거쳐 지정되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되고 업체의 이미지 제고도 업주들의 자발적인 전철도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하는 등 착한가격업소가 더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올해 음식점, 미용실 등 총 17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 추석 대비 장바구니 물가 사수 나서

천안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권익 보호대책 마련

천안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등 30개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지역물가안정에 나선다.

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7일간을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사과, 배 등 20개의 성수품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해 2차에 걸쳐 물가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9월 4일에는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시지부(대표 신미자)와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대표 지강화)가 신부동 상점가, 남산중앙시장 일대에서 부당한 가격인상 자체,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캠페인을 펼쳐 범시민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구분영 시장은 "폭염이나 계절적 수요로 인한 농·축산물 등 성수품의 가격 인상이 염려됨에 따라 추석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지역물가안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 열려

서천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 2021년도 건립 완료 목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를 지난 23일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진행했다.

군은 신청사의 실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군민에게 현재까지의 설계내용을 설명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내실 있는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방문이 많은 1층은 사회복지실, 민원봉사과, 아이돌봄 시설, 모자휴게실 등이 위치하고, 2층은 대회의실과 북카페, 스포츠 센터, 문화강좌실 등 군민 이용 공간으로 제공하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직원 업무공간으로 계획했다.

장항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많이 늦었지만 서천군 청사 이전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디 서천군 신청사는 6만 군민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청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서천군 청사 신축을 위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사 위치가 결정되고 현재 실시계획 단계까지 왔다"며 "군민과 약속하고 서천군 모든 군민이 원하고 있는 대로 2021년까지 신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이에 덧붙여 "서천군 신청사가 우리 서천군민 모두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김태성기자

## 청년일자리사업 활성화위한 간담회 열려

### 논산시, 중소기업 채용형 인턴지원사업 참여기업 전담매니저 대상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3일 논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논산시 중소기업 채용형 인턴지원사업 기업 전담매니저 2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채용형 인턴지원'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는 인적자원 확보의 기회를, 미취업 청년에게는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통한 지역정착 기반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기업은 청년을 추가 채용할 시 2년간 임금의 90%를, 청년은 일자리 확보 및 직장적응을 위한 캠프·특강 등 청년직업지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전담매니저가 참석해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와 기업의 애로사항, 집의응답 청취 등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이뤄져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일자리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논산=김태성기자

###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민관협력 참여정원 조성

천안삼거리공원 호남길 일원에 다양한 작가정원 도입 계획



천안시는 2021년 하반기 준공에 정인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의 대상지 중 호남길 일원에 '민관협력 참여정원'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천안삼거리공원에 조성될 민관협력 참여정원은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단순 정원 조성·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꾸꾸고 존치하며 지속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즐겨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정원은 시민 참여정원과 기업·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작가정원으로 구분된다.

시민참여정원은 5㎡ 면적의 10개 작품을 공모할 예정으로, 참여정원 조성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이 공고될 전망이다.

기업·기관·단체 등이 참여하

### 일제강점기 부여신궁터 활용·보존 본격 공론화

부여군, 27일 일제강점기 형성유산 공론화 토론회

부여(군수 박정현)는 부소산 삼층사 입구에 현존하는 지하굴(부여신궁 관련 시설물)의 보존가치 판단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토론회를 27일 오후 2시 여성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내선일체의 정신적 도장으로 부여신궁 건립을 공표하였다. 한반도를 대륙 진출의 전진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는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을 확대 강화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관계가 깊은 백제왕도 부여에 신궁 건설을 계획하였다. 193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일제 패망으로 신궁은 완성을 보지 못하였고, 현재는 신궁터에 삼층사가 건립되어 있다.

부소산 지하굴은 신궁 건립과정에 형성된 시설물이며 부여 신궁 관련 증거물로 아직도 현장에 남아 있다. 이들 시설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부여신궁 조성과정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면서 부소산 일대는 물론 백제왕궁지로 추정되는 부소산 남쪽지역을 비롯한 부여의 여러 곳에 지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신궁공사는 백제 멸망 이후 최대의 토목, 건축공사였기에 부여의 지형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그와 같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토론회 진행은 임병고 원장(백제사적연구회)의 기조연 '부소산과 부여신궁의 기억'을 시작으로 황재선 위원장(연재 홍사준 기념사업회), 장호수 원장(백제역사도시연구원)의 주제 발표와 더불어 부여신궁 관련 잔존 시설물의 보존 및 활용 문제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함께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 공론화 토론회가 백제의 사비 수도를 연구함에 있어 일제 강점기에 시도된 부여신궁 건설과 이에 따른 도시변화에 대한 이해가 백제왕도를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규기자

### 계룡시 도서관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초등학생·성인 등 연령별 맞춤 강좌 운영, 27일부터 선착순 접수



계룡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계룡, 염사도서관에서 운영되는

2019년 하반기 독서, 문화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8월 27일(화) 오전 9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yeong.go.kr)를 통해 강좌별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 료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 초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각 연령별 맞춤 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

유아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북스타트 '아기랑 부모랑 책놀이'는 12개월~28개월, 29개월~40개월 유아와 동반가족 각 15개팀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은 후 다양한 책놀이 활동을 연계해 아이들의 창의력 및 상상력 발달은 물론 아이와 부모 간 애착형성을 유도한다.

초등학교 1~4학년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동아리'는 연령별 맞춤 독서와 독후활동을 통해 책읽기를 즐거운 놀이로 인식하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 줄 계획이다.

성인프로그램은 자기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교육수요가 높은 외국어 글쓰기 등 5개 강좌가 운영된다.

주간 프로그램으로는 ▲테마 중국어회화 ▲수업은 필수다 ▲여행 영어회화 ▲여행중국어회화가 운영되며, 직장인들을 위해 오후 7시부터 영화와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강좌도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강의일정 및 강의시간 등 강의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도서관(042-840-3603), 염사도서관(042-840-3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서천특화시장 새 물결 지역 선도형 시장 사업 본격 추진

서천군, 26일 지역 선도형 시장 육성사업 설명회 열려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6일 서천특화시장에서 상인, 사업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특화시장 지역 선도형 시장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천군과 시장 상인회는 지난 3년간의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마친내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선도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역 선도형 시장 사업은 전통시장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해 내·외국인 고객 유입촉진을 위한 지역 특화상품 고도화하고, 상인 조직화와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내 거점시장 및 글로벌 명품시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1년 6월까지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및 홍보 ▲ICT 융·복합 및 디자인 경영 ▲3대 서비스 및 2대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서천특화시장 지역 선도형 시장 육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전국을 대점시장 및 글로벌 명품시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통정

주인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구분영 천안시장은 27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참석.

경로당 준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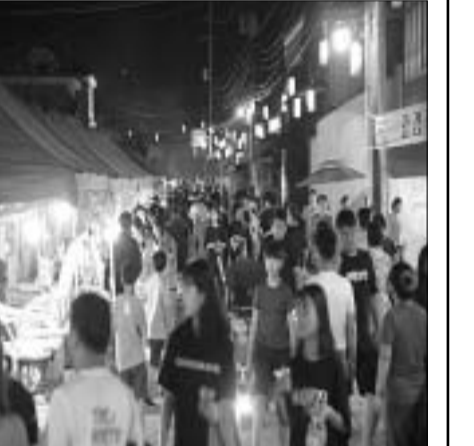
황명선 논산시장은 27일 오전 11시 강산8동 경로당에서 개최되는 강산8동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서천철새여행추진위원회

노박래 서천군수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오후 4시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9년 서천철새여행추진위원회에 참석.

공론화 토론회

박정현 부여군수는 27일 오후 2시 여성문화관에서 열리는 일제강점기 형성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공론화 토론회에 참석.



### 2019 강경 문화재 야행(夜行) 성료

100여년 전, 평양장, 대구장과 함께 전국 3대 시장으로 꼽히며, 전국에서 가장 시끌벅적한 곳 가운데 하나였던 강경. 그 시절 변화했던 강경이 다시 재현됐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강경 읍내봉과 근대역사문화거리 및 구락부 일원에서 진행된 '2019 강경 문화재 야행(夜行)'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비교적 늦은 시간에 이뤄진 행사였음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근대문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강경의 밤거리를 거닐며, 일제강점기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강경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평상시에는 보기 힘들었던 강경지역 곳곳의 문화재를 개방해 시민들이 좀 더 강경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물론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 문화 콘텐츠들이 이어져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국민작가 김홍신·박범신의 특강은 그때 그 시절을 그리는 강경의 옛 추억이 아기가 펼쳐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됐다.

이외에도 100년 강경역사가 담긴 사진전, 정동만들기, 버스킹 공연 등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를 가득 메운 볼거리와 놀거리로 한여름 밤 강경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강경은 아우내장터의 3·1운동보다 먼저 독립만세운동이 이뤄진 곳으로, 1924년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운동, 강경중앙초등학교 역사사업 거부사건 등 항일정신을 꽃피운 역사적인 장소이다.

또, 김대건 신부의 첫 사목활동지, 스승의 날 발원지이기도 하며, 임리정, 팔배정, 죽림서원, 강경 원목다리 등 시도유형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산 역사의 장으로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장소로 여겨진다.

특정

중장기 발전방향 포럼



김동일 보령시장 = 27일 오후 2시 30분 웨스토피아에서 열리는 농촌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방향 포럼 참석, 오후 4시 시장실에서 민원상담의 날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개소식



맹정호 서산시장 = 27일 오전 10시 새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서산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 오전 11시 20분 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산시 귀농귀촌협회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 오후 1시 30분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리는 서산시 농업인 참여에 산재 워크숍에 참석, 오후 2시 지역생활센터에서 열리는 서산시지역생활센터 종사자와 간담회에 참석.

소통의 날 행사 주제



문정우 금산군수 = 27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열린군수실 소통의 날 행사를 주관한다.

협약과제 추진계획 보고회



손권배 공주시 부시장 = 27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자살예방대책 협약과제 추진계획 보고회에 참석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500대 8억 4천만 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20대 8천만 원 등 총 8억 84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식 이하의 건설기계(덤프트럭, 레미콘 등)로, 정부지원을 받아 매년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공주시민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보조금과 신차구매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 사업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공주시 2년 거주제한을 폐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수혜(예정)자 중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구입 시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일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로, 신청서류 및 보조금 지원절차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여름 끝자락 온열 질환 주의 당부

보령시, 추석 이후까지 대응... 냉방비와 부채·얼음물·쿨스카프 등 지원

보령시는 올해 막바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 등)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지난해 4명에서 올해 26인 현재까지 2명으로 온열질환자가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장시간 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사병과 열사병, 실신, 경련, 탈진 등이 있으며, 여름철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활동자 및 고령자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 있으며, 이와같은 증상 발생 또는 목격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시는 그동안 6월부터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가정방문 및 안부전화, 문자서비스 등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했으며, 경로당 등 냉방비와 부채, 얼음물, 쿨스카프 등을 지원해왔다.



또한 9월까지 경로당,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충분한 수분섭취 및 휴식, 폭염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생활 속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을 안내하여 시민 모두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권장해오고 있다.

특히, 시는 이른 추석으로 인해 아직까지 무더운 상황에서 벌초 작업 및 성묘객 증가로 만원에 있을 온열질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석 이후까지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키로 했다.

박승렬 보건소장은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덜하지만 올해도 더위로 인해 어르신 및 취약계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보령시 오는 30일부터 열려

보령시는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무창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1회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개최한다.

시가 주최하고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윤세영)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바닷길이 열리는 무창포 해수욕장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활성화하고, 축제를 통해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음식점, 숙박시설 및 전통시장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린다.

행사는 무창포 해수욕장 잔디광장에서 축하공연 및 체험, 연계행사 등 21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7시부터 개막식과 축하공연, 불꽃 및 레이저 쇼가 열리고 31일에는 ▲오전 9시 30분 어린이 바다그림 그리기 대회 및 독살어업체험 ▲오전 11시 맨손고기잡기체험 ▲오후 2시 후릿그물체험 ▲오후 3시 관광객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오후 7시 30분 통가타 경연대회 ▲저녁 9시 30분 무창포항 등대 인근에서 불꽃 및 레이저 쇼 ▲저녁 9시 40분에는 대해로 횡단보도 석대도까지 횡단보도 체험 및 조개잡기 체험이 진행된다.

또 축제 마지막 날인 9월 1일에는 ▲오전 10시 독살어업 체험 ▲오전 11시 맨손고기잡기 체험 ▲오후 4시 청소년 끼 경연대회 ▲오후 6시 버블 마술쇼 ▲저녁 9시 한여름밤의 음악회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이와 함께 행사장 인근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예보 체험 ▲전통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먹거리 체험 ▲대나무 물총만들기, 도자기, 우드버닝, 페이스페인팅, 글로브 의상, 캐리커처 등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독살어업 및 맨손고기잡기, 후릿그물체험은 조상들의 전통어업 체험과 함께 본인이 잡은 물고기를 인근 횡단보도에서 직접 회로 떠서 먹을 수도 있고, 횡단보도 체험은 신비의 바닷길에 열리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들고 어업활동을 체험하는 평생에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느낄 수 있다. 체험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축제기간 바닷길은 30일에는 오전 10시 7분(조위 116cm) 및 저녁 10시 12분(조위 36cm), 31일에는 오전 10시 52분(조위 72cm) 및 저녁 11시 11분(11cm), 9월 1일에는 오전 11시 34분(44cm) 및 저녁 11시 46분(조위 11cm)에 열리며, 1시간 전후로도 적체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추진위원회 ☎930-4512 또는 보령시 관광과 ☎930-6611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김정미 기자

우리/동네

금산군 추석 명절 맞아

금산사랑상품권5% 특별 할인

금산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평상시 3% 할인판매하고 있는 금산사랑상품권(5%) 특별 할인판매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 원한도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할인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이·미용업소, 주유소,약국, 의원 등 개점점으로 지정된 500여개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이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특별할인판매 행사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금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권구매와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가맹점 등록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지역경제과 ☎750-2653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주연기기자

서산시 2020년 예산편성

주민참여 시민회의 개최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 23일 베니키아호텔서산에서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서산시 주민참여예산 시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개모집과 읍면동 추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 다문화 가족 등 16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재정현황 교육 ▲자유토론과 제안 사업 발굴 ▲공모 접수순서 제안사업 98건과 현장 제안사업에 대한 전자투표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과정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서산시는 주민제안에 대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회의에 자녀와 함께 참여한 한 시민은 "시민회의를 통해 예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예산이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관심과 기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한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여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우뚝 섰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주인으로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는 2년 연속 주민참여예산제 전국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전국 최초 농업인 참여예산제 운영, 충남 최초 청소년참여예산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보다 44억원이 증액된 111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서산=김정민기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주민 의견 수렴

공익활동지원센터 준비위원장 구성 논의 서산시, 내년도 1월 센터 본격적 운영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참여 기반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관계자, 시민활동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 공모에 선정된 서산시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가 추진 중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방향과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과 관 중간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여 공익적 시민활동의 촉진과 공익단체 성장 기반 지원, 활동가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이다.

지난 3월 충청남도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지원 공모에 선정된 서산시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민 간담회를 열고,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설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

하면서 설치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도 1월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수 자치행정국장은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가 함께 존중되고, 민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설치·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민기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교육

공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등 15개소 20여명 대상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3일 공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등 15개소 2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

안전과 심폐소생술,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류승용 농촌진흥과장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는 체험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체험관광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보령시 추석 앞두고 명절용 햅쌀 첫 수확

보령시는 지난 25일 청소면 재정뜰에서 추석을 앞두고 올해 첫 벼 베기를 실시했다.

이날 벼 베기는 5월초에 도내기린한 조생종으로 오는 9월 3일까지 수확하여 추석 전 햅쌀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비가 온 날이 적고 일조량이 많아 벼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어 풍년농사가 예상된다.

김동일 시장은 벼 베기 현장에 참석해 직접 콤바인으로 벼 수확하고 낟알을 살펴보는 등 농민들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함께 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 가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추석 명절용 햅쌀 판매로 농가소득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오늘의 하이라이트

수상한 장모 (SBS 오전 8시20분)



손우혁과 흥장미, 이대로 잠잠할까?! 수진의 무리한 요구와 차가운 태도에도 물러서지 않는 은석, 제니는 은석이 안쓰러워 미안한 마음만 생기는데...

여름아 부탁해 (KBS1 오후 8시25분)

상원(윤선우 분)은 보라의 아이를 찾기 위해 수 소문하고, 경애(문희경 분)는 수철(손종범 분)을 시켜 상원보다 먼저 아이를 찾았다고 한다.

케이블 명화

조작된 도시 (OCN 오후 10시00분)

범죄액션의 신세계가 열린다! 새롭게 즐겨라!

게임 세계 속에서는 완벽한 리더지만 현실에서는 평범한 백수인 '권유' (지창욱). PC방에서 우연히 휴대폰을 찾아 달라는 낯선 여자의 전화를 받게 되고 이후, 영문도 모른 채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으로 몰리게 된다.

특수효과 전문 '데블리션' (안재홍을 비롯 게임 멤버가 모두 모여 자신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 나가기 시작하고, 조작된 세상에 맞서기 위한 자릿한 반격에 나서는데...!

살인자로 조작된 시간, 단 3분 16초 그들이 짜놓은 세상, 우리가 뒤집는다!

한편 명재김에령 분는 석호(김산호 분)에게 소라(김가란 분)와 잘해보라고 하는데...

태양의 계절 (KBS2 오후 7시50분)



<내가 지켜게!> 태양은 지민이 불모로 잡혀 있다는 말에 괴로워하고, 시월은 태양에게 지민을 찾을 때까지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한다. 목적은 태양이 지민에 대해 알고 자신과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한다.

탐정: 더비기닝 (채널CGV 오후 6시20분)

“딱 봐도 범인 아니구만!” VS “죄랄도 없는 놈이 아는 척은!”

국내 최대 미제살인 사건 카페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 '강대만' (권상우)은 야기 돌보라, 만화방 운영하라, 부인 눈치 보라 일상에 치여, '셜록'의 추리력은 당최 쓸데가 없다. 유일한 낙은 경찰서 기웃거리며 수사에 간섭하기! 광역수사대 출신 레전드 형사 '노태수' (성동일)는 형사 췌치는 실력의 대안이 눈엣가시 같기만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이자 강력계 형사인 '준수'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고, 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공식 합동추리작전을 시작한다. 그렇게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하던 그들 앞에 두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탐정: 더비기닝>은 한국의 '셜록'을 꿈꾸는 추리광 '강대만' (권상우)과 광역수사대 레전드 형사 '노태수' (성동일)의 비공개 합동 추리작전을 담은 영화다.

케이블 & 위성방송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Table with 5 columns: OCN, 채널 CGV, Mnet, MBC 스포츠, YTN, MBC 뮤직, 애니맥스, JEI, 한국경제TV,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프로그램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Lists broadcast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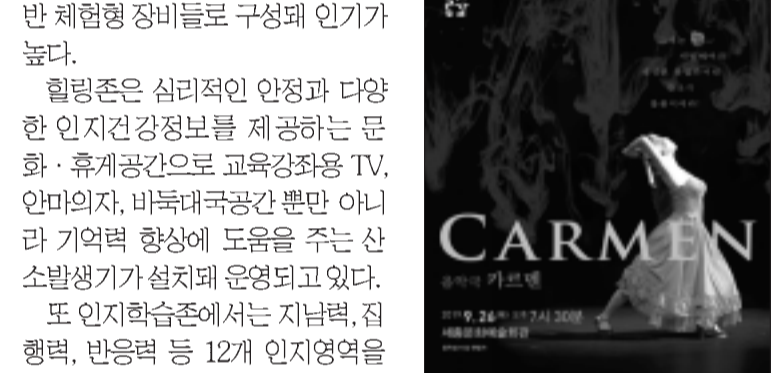
아산시 스마트인지건강센터, 1일 평균 어르신 200명 이용

어르신들의 인지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아산시 스마트인지건강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의 인지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에게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스마트인지건강센터는 일상에서 꾸준히 자가 인지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고, 다양한 인지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 TSP중괄의 후원으로 지난 5월 개소해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문화재단, 9월 26일 음악극 <카르멘> 선보여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은 다음달 2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음악극 <카르멘>을 선보인다. 원작인 소설 '카르멘'은 1845년 프랑스 작가 프루스페르 메리메의 작품으로 오페라, 발레,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색되어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카르멘>은 살면서 꼭 봐야할 3대 오페라에 꼽힐 정도로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작품이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2019 유럽투어 프리뷰 콘서트

9월 10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대전시립합창단 제145회 정기연주회 '2019 유럽투어 프리뷰 콘서트'가 9월 10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대전시립합창단 2019 유럽투어 콘서트에 앞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

에서는 유럽에서 선보일 다채로운 곡들을 미리 만나보는 무대로 낭만시대 작곡가 브람스, 멘델스존의 합창곡부터 한국인의 역동성과 그리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한국가곡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연주회는 멘델스존(F. Mendelssohn)의 '8성부를 위한 독일 전례'와 슈니트케(A. Schnittke)의 '세 개의 성가', 비블(F. Biebl)의 '아베마리아' 등 아름다운 선율의 전례음악과 성음악으로 막을 연다. 멘델스존의 '8성부를 위한 독일 전례'는 베를린 성당 예배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아름다운 내적 구조와 서정적인 선율을 담고 있다. 슈니트케(A. Schnittke)의 '3개의 성가'는 러시아 종교 음악의 낭만적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나렉츠카스(G. Narekatsi)의 시에 곡을 붙인 아카펠라 곡이다. 또한, 비블(F. Biebl)의 '아베마리아'는 삼중기를 가사로 한 곡으로 절제된 아름다움, 감미로운 합창의 선율이 매우 인상적이다.

광고문의 (042)538-2030



**김종률 금강유역청장, 보령댐 운영현황 등 보고 받아** 김종률 금강유역청장은 2019년 8월 26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에서 보령댐 운영현황과 가뭄대응 계획을 보고 받고, 충남 서북부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당부했다.



**동부교육지원청, 전병두 교육장 정년 퇴임식 개최** 동부교육지원청 전병두 교육장은 8월 26일 동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가족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 퇴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전병두 교육장이 직접 토크쇼를 진행하며 교육장으로서의 임기를 돌아보고 40여년간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양승조 지사, 해방대전우회와 환경 정화 활동** 양승조 충남지사는 25일 아산 신정호 일원에서 해방대전우회 충남연합회와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환경 정화 활동은 접근이 어려운 수중 쓰레기 및 위험물을 제거하고,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마련됐다.



**미래엔 서해에너지 '동물 보호소' 돌봄 봉사 실시** 미래엔 서해에너지(대표 박영수) 한미음료사단은 지난 23일 당진에 위치한 당진시 동물보호소를 방문해, 담요 등 지원물품 기증과 더불어 산책, 청소 등을 통해 유기견, 유기묘를 위한 돌봄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보이스피싱 예방한 시민에게 감사장 수여**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26일 오후 국민은행 대전중앙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대전대학교 하계 외국어캠프 성료**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외국어교육센터(센터장 허명애 교수)는 지난 23일 대학 30주년 기념관 10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하계 외국어캠프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 제21회 전국 세무회계·기업회계 경진대회

# 신성대 세무경영과, 2년 연속 대상 수상

신성대학교(총장 김병목) 세무경영과가 지난 24일 교내 융합 교육관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세무회계·기업회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포함해 5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신성대 세무경영과학과장 김상진은 세무회계 단체부문 대상(황금희, 전동선, 안동혁, 강미진, 문민규) 세무회계 개인부문 대상(안동혁), 금융(문민규), 은상(전동선), 세무회계부문 특별상(김관호, 박인정, 정수완, 조명희, 강예원) 등을 수상했다.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와 한국 지식경영 교육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국내 회계세무분야



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실무 인지 능력을 높이고 학습동기를 부여해 교원들의 질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 50여 개 학교에서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신성대 세무경영과는 금융, 세무회계 등 경영분야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해 직장인이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며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많은 졸업생들이 공공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및 우수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탄탄한 인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김상진 학과장은 "우리나라 세무·회계분야의 대표적인 대회를 우리 대학에서 유치한 것도 영광스러우며, 학과 재학생들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자랑스럽다"며 "세무회계분야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해온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 심사평가원, 추석맞이

### 직거래장터 개설

건강보합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심사평가원 본원 사옥 앞마당에서 '잇다장터와 함께하는 한가위 맞이 더(TH) 심평마켓'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장터는 '강원굿'·'인니네 킷발 협동조합'·'원주시 농특산물유통협회 및 청년연합회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포함한 총 17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장터로, 한우, 과일, 한과 등 추석 선물세트와 전통 음료, 간식, 계절 농산물 꾸러미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 알림

▲ 대전시립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27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브리핑룸(9층)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 서산시청 정민숙 팀장, 문인화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작품명 '가을을 기다리며' 문인화부문 최고성적



서산시 시민공공체과 정민숙(여·50) 팀장이 제29회 공무원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미술대전은 공직자 예술적 재능 개발과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열린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서예 한글, 문인화, 한국화 등 7개 부문에 걸쳐 모두 1184점이 접수되었으며 3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됐다.

문인화 부문 금상에 이름을 올린 정 팀장의 작품 '가을을 기다리

며'는 수목화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채색기법을 가미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팀장은 제15회 미술대전 입상과 제27회 지방행정공무원미술전 서예부문 특선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인화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주말에는 서산과 서울을 오가고 있다.

정 팀장은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얻고 싶어 취미로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과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 '제12회 아산시장기 품물대회' 오는 31일 개최



아산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아산시회(회장 김원근, 이하 아산예총)이 주관하는 제12회 아산시장기 품물대회가 오는 8월 31일(토) 오전9시 온양온천역 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2회째 맞는 아산시장기 품물대회는 우리 문화 고유의 전통 품물을 전승 및 보존해 이어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과 기쁨을 전파시키며 문화향유를 통한 아산시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대회 대상팀 온양(충) 나래울품물단을 포함 아산시 관내에서 활동중인 21개 품물단이 참여하고 새롭게 출발한 국악지부도 함께하여 역대 최고 수준 높은 품물의 경연장이 될 것이며 또한 온양온천역 광장 일원에서 개최함으로써 남녀노소가 한데 격의 없이 품물과 사물이 어우러지는 한여름 축제의 국악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리량주기자

## 맥키스컴퍼니 조용래 회장, 양승조 지사와 지역인재육성 맞손

충남인재육성재단과 '지역사랑 장학캠페인' 업무협약



재단 이사장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충남지역에서 판매되는 '이제우리' 소주의 수익 일부를 적립해 향후 10년간 장학금 기탁이 이뤄진다. 기탁된 장학금은 충청남도의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사용된다.

맥키스컴퍼니에서 시행하는 '지역사랑 장학캠페인'은 대전·세종·충남권 각 시·군에서 판매되는 '이제우리' 소주 1병당 5원씩 적립해 소비된 지역의 인재육성을 돕는 지역 사랑 캠페인이다. 우리동네에서 '이제우리' 소주를 1병 마실 때마다 우리동네에 장학금 5원씩이 적립되는 구조다.

지난 5월 10일 대전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대전 5개구, 세종시, 충남 15개 시·군의 22개 지치단

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맥키스컴퍼니는 26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과의 업무협약을 끝으로 약 4개월 간의 '지역사랑 장학캠페인' 협약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누계되는 적립금은 내년 초부터 각 지역에 1년 단위로 10년간 매년 장학금 기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이제우리' 소주의 판매증가에 비해 해당지역에 기탁되는 장학금의 액수가 늘어나며, 맥키스컴퍼니는 2028년까지 10년간 40억원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캠페인을 꾸준히 지속할 방침이다.

맥키스컴퍼니 조용래 회장은 "장학금 기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향후 10년 간 꾸준한 장학캠페인으로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미미치즈닭갈비, 충남대에 1,200만원 발전기금 기부

# "10년 전 못 다한 기부, 이어갑니다"

지난 2010년 충남대에 3년 동안 발전기금을 기부하다가 폐업과 사업권역 이전으로 기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후원의 집이 10년 만에 다시 기부를 약속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유성구 죽동에 위치한 닭갈비 전문점 '미미치즈닭갈비' 최동욱 대표다. 최동욱 대표는 8월 26일(월) 오후 3시 30분, 오덕성 총장을 방문해 신축도서관 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1,200만원을 전달했다.

최동욱 대표는 지난 2010년, 충

남대 인근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고기오 닭갈비'를 운영하며 충남대 후원의 집으로 등록해 매달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당 가게는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발전기금 기부도 3년 만에 멈췄다.

이후 최동욱 대표는 전북지역으로 사업권역을 바꿔 5년여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했으며 지난 7월, 충남대 인근인 유성구 죽동에 '미미치즈닭갈비'를 오픈하며 다시 충남대에 발전기금을 이어가게 됐다.

이정복기자



한발대 "외부 전문가의견 수렴"으로 대학혁신 앞장 선다

## '대학미래위원회' 구성하고 첫 회의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은 26일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제1회 대학미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정책 개발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학의 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것.

산·학·연, 언론계 및 교육계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1명과 한밭대 주요 보직자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기(상·하반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 후 처음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다론키리아 김진환 대표, 엠비엔(주) 김세환 상무이사 등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최병욱 총장, 보직교수 등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볼 때 대학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며, 사회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과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한밭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밭대가 마련한 본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좋은 인재를 키워가면 좋겠다"는 바람도 이어졌다.

김정환기자

### 도완석 교수의 행복한 영화이야기 영화 '열두살 샘'



도완석 교수



를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며 깊은 감 상 속에 빠져들게 되는지도 모른다. 또 하나 이 영화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죽음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 는가?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인생 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이다. 모든 영화가 끝나고 한참중 인을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서 생 각을 연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문득 영화 속 소년의 죽 음을 생각하며 뒤늦게 눈시울을 붉 게 하는데 이것이 이 영화의 은근 한 매력인 것이다. 영화이야기 구성 또한 독특한 연출솜씨가 돋보인다. 이미 치료를 중단하고 시한부인생 을 살아가고 있는 소년에게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정답없는 7가지의 질 문으로서 자신의 시한부적인 삶을 가지게 데코레이션 해준다. 샘이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첫 번째 정답 없는 질문은 '사람은 왜 죽어야 하 는가?' 이다. 이 질문에 앞서 샘은 자신의 존재를 다섯가지로 표현한 다. '내 이름은 샘이고 나는 12살이 며 나는 신기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나는 백혈병 환자로서 언젠가 내가 쓴 일기를 누군가가 보게 될 때에는 이미 죽어있는 사람' 일개 라고 했다. 열두살 소년 샘은 모든 환자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기적이 라는 희망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샘은 누구나 두려워해야 할 죽음에 대해서 두려 움을 갖지 않고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참 영특한 소년이다. 어쩌면 이것이 스스로 자문하는 정 답없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기 지도 모른다. 샘은 이러한 자기 생 각을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과 함께 일기행식의 비디오 영상으로서 기 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은 윌리스 선생님의 제안을 합당하게 공감했 기 때문이다. 샘은 병원에서 만난 같은 또래의 백혈병 환자 펠릭스와 함께 흡스쿨링으로 공부를 한다. 어 는 날 윌리스 선생님은 그들 두 소 년에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한 다. 그것은 관객을 향한 영원한 생 명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년들의 대답은 엉뚱했다. 펠릭스 는 뱀파이어가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 샘은 냉동인간 으로 잠들게 한 후 과학 기술의 발 달로 영원히 죽지않는 기술이 개발 될 때 그 냉동해체를 시키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럴듯한 대답을 한다. 비록 삶의 기적을 바라지는

### 행복한 죽음을 꿈꾸는 열두살 소년의 버킷리스트

않지만 본능적으로 삶에 애착을 가 지고 있는 평범한 소년임을 말해주 고 있는 장면이어서 갑자기 코끝이 찡해진다. 이 때 윌리스 선생님은 그들에게 현재 남아있는 자신들의 삶을 일기나 비디오로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한다. 이로 서 샘은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일 기와 비디오로 기록을 해놓으면서 한편으로 버킷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실천해보기로 했다. 샘은 계 속해서 정답없는 물음으로 삶에 도 전하고 연구를 시도하며 마치 오피 버스식으로 영화 줄거리를 전개시 켜 나간다. 그리고 사람이 왜 죽어 야 하는가?에 이어 샘의 정답없는 나머지 6가지의 질문은 계속된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어린 아이인 자신에게 죽음의 이쁨을 경 험하게 하시는 걸까? 세 번째 질 문- 자신은 살아있는데 남들이 죽 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니? 네 번째 질문-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아프다는 것일까? 다섯 번째 질문-죽음은 어떤 모양이며 어떤 노름 일까? 여섯째 질문- 사람은 누구 가 꼭 죽어야 하는가?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 로 가는걸까? 이다. 이 영화에서 감 독은 묵시적으로 정답이 없는 질문 이라고 했지만 형식 기록적인 관 점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싶어 했다. 그러면서 또 감독은 이런 심 각한 질문 도중에 갑자기 현실적인 상황으로 카메라 앵글을 옮기면서 샘과 펠릭스가 죽기 전에 하고 싶 은 일 다섯가지를 기록하게 하고는 마치 성장드라마와 같은 코믹한 장 면들을 보여준다. 죽음이라는 주제 로서 심각해하며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영화관객들에게 코멘트를 제공한다. 샘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참 단순하고 소박 하다. 첫째 과학자가 되어 논문을 발표하기, 둘째 성인들이 보는 공포 영화보기, 셋째 에스컬레이터를 거 꾸로 타고 올라가 보기, 넷째 비행 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보기, 다섯째 10대 소년으로서 술과 담배 를 맛있게 피워보고 예쁜소녀와 키 스해보고싶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 어지지 않을 성인의 시간에 대한 일종의 기대심리였던 것이다. 샘의 이러한 소원은 마침내 친구 펠릭스 의 도움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러 한 순진한 웃음을 제공하고 친구 펠릭스는 먼저 세상을 떠난다. 그들 이 예상했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 때 샘은 펠릭스의 죽

의 소식을 듣고는 절대로 울어서는 안된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자기방 의 창문에서 "This is not fair(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라고 써놓고는 울부짖는다. 그리고 샘은 펠릭스의 시신 앞으로 다가가서 평소 펠릭스 가 자신에게 부탁한대로 펠릭스의 안경을 펠릭스에게 씌워준다. 전부 터 두 소년은 죽음은 삶의 연장인 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계속 관찰 할 수 있을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 문이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의연 한 어린 샘을 통해 샘의 아파와 엄 마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성 가대에 열심을 다한다. 물론 영화 중간 중간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과 고통에 아파하는 엄마의 눈물이 우 리로 하여금 울컥 눈물을 쏟아내게 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감독은 앞서 밝힌바 처럼 사람들에게는 각자 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가 있지만 죽음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 죽음은 삶의 연장 선상임을 강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눈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샘 일기를 맡은 '팔로마 아키에라스' 는 이미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아 역으로 출연한 전문 아역배우이고 펠릭스역을 맡은 '토미 헤어' 역시 영국의 아역 전문배우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인들도 하기 힘든 삶과 죽음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몹시 도 힘든 컨셉이었겠지만 많은 영화 출연 경험을 통해서인지 성인연기 자들 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사실 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펠릭스 의 장례식 중 샘은 "이 모든 가식적 인 예배순서가 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라고 외치면서 교회 밖 으로 뛰쳐나간다. 그리고 하늘을 향 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정답 없는 7가지의 질문을 소리쳐 되묻 는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 물음 에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투덜댄다. 바로 이 때 펠릭스의 사촌여동생인 아름다운 소녀 케일라가 다가와서 샘에게 다양한 키스를 해준다. 그것 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 신다는 암시적인 은유처럼 느껴진 다. 마지막 장면에서도 샘은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는 아빠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아빠 저는 준비 됐어 그러니까 울지마세요"라고... 이 영화의 제목처럼 '영원히 사는 길은 무엇일까?' 영화는 모든 관객 들에게 장면 장면 알 수 없는 감동 을 전해주면서 더불어 영생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생각해 한다. 참 아 름다운 불만한 영화이다.

## 사 설

### 못믿을 북한, 대응방식 바뀌어야

북한이 24일 아침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 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에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했다. 이날 들어서만 5번째고 올 들 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모두 9 차례다. 북한의 막말과 무력도발을 도대체 언 제까지 참고 인내하며 두고 봐야 하는지 답답 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 만이 고조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재인대통령 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사지시하는 지 혜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분위 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군사연습이 이미 종료됐 음에도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도발을 멈추지 않 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강력대응이나 규탄에 대한 언급조 차 없이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행위의 중단 을 촉구하는 강한 우려와 조속한 북미협상이 이뤄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겠다는 게 청와대대응의 전부였다. 평화 경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가지를 정 면으로 위반하는 막가파식 도발이란 점에서 한 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는 물 건너갔다는 성급한 지적까지 나온다. 트럼프미 국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 다며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북한 의 미국을 향한 비난과 '무력시위'의 행보가 여 전히 진행 중임은 분명하기가 때문이다.

### 양극화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5분위(최상위 20%)와 1분위(최하위 20%) 가구 간 소득 격차 가 5.3배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 다. 1분위 가구 총소득은 변동이 없었지만, 5분 위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소득 격차가 커졌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곳은 1분 위 가구의 '질적 악화'다. 실제 소비가 가능한 '처분가능소득'이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했다. 소득 구성에 있어서도 기초연금이나 복 지비 같은 이전소득은 9.7% 늘어난 반면 근로 소득은 15.3%나 줄었다. 특히 근로소득은 2017 년에 비해 약 29%(61만5천600원 →43만3천 700원) 감소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인상 되는(29.1%) 동안 최빈곤층의 근로소득도 그만큼 반비례로 감소한 것이다.

왜 정책 의도와 달리 최빈곤층의 상황만 악 화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가구의 분화'라는 시대적 · 사회적 흐름 속에서 경제적으로 열악 한 노인 계층이 홀몸 또는 (2인 이상) 1분위 가구로 이동하며 생긴 측면이 크다고 본다. 특히 통계청 자료를 보면, 1분위 가구 평균 연 령은 63.8세로 나머지 가구 평균 연령인 50.8세 보다 13세나 높다. 한마디로 최빈곤층 이슈가 고령화와 미흡한 사회안전망 등 노인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 가로 · 보안등 LED 교체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

### 동구, 가로 · 보안등 2300개 LED 교체 및 신규설치 완료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가로등과 보안등 2300개를 LED 등으로 교체 및 신규설치해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동서대로, 기양로, 대전로, 계족로 등 주민 과 차량통행이 빈번한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노 후 가로등주 교체와 함께 가로 · 보안등 2300개를 LED등으로 교체했다. 특히 우거진 가로수가 등을 가려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동구청로와 동서대로에 보 행등을 추가로 설치해 보행 환경을 크게 개선했 다.

LED등은 저탄소 친환경 제품인데다 기존 나트 륨 등보다 에너지 효율이 좋아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가로 · 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 시 사용되고 있다. 구는 올해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연간 약 3천 등 이상 교체를 목표로 2021년까지 전면 교체 목 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LED 교체 3개년 계획을 통 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전기요금 절감 효 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로 · 보안등은 주민들의 안전 및 범죄예방과 직결되는 만큼 고효율 조명기기의 조속한 교체를 통해 친환경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김태선 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 d-mail@ham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강 칼럼



나성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원장

최근 인터넷 기사에서 1973년부터 10년간 방송되었던 '장수만세'라는 TV 프로그램 있었는데, 당시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66세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TV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족들과 함께 출연하여 문제를 풀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다시 '장수만세' 프로를 한다면 100세 전후의 어르신들이 많이 출연하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여아 85세, 남아 83세 라고 합니다. 1980년과

### 위, 대장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

비교하면 20년 가까이 증가한 수치 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120 세 시대가 멀지 않은 듯한데, 100세 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암 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국의 사망원인 1위는 악성 신장암입니다. 2위와 3위는 신 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렇 다면 한국인에 어떤 암이 많이 발 생할까요?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장암은 급격히 증가하여 여자에 서는 2위, 남자에게서 4위의 발생을 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인은 위암에 많이 걸리 며, 대장암은 왜 증가하고 있을까?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환경적, 유전적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 음 식이 위암과 대장암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그 럼치 않은 사람보다 위암발생율이 4.5배 정도 높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짭짤한 음식이 많은 편입니다. 통째로 찜을 즐겨 먹었지요. 대장암은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그들의 육류를 즐겨먹는 식습관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 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 육류 섭취가 늘어나면서 대장암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 장암은 더 이상 서구의 암이 아니 고, 한국인의 암이 되어가고 있습니 다. 100세 시대를 여는데 있어서 위 암, 대장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위암,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짜고, 맵고, 탄 음식, 육류, 인 스텐스 식품등의 섭취를 줄이고, 신 선한 야채와 과일 등의 섭취를 늘 려야 할 것입니다. 식생활 개선으로 위암, 대장암 발생을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대장암 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를 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3기 이상의 위암의 경우는 완치율이 25% 정도 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5% 이상입니다. 초기에 위암을 진 단하면 대부분 완치가 되고, 제 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통계지표를 보면 1980년대까지 는 진단된 위암 중 조기위암의 비 율이 15%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그 비율이 75%까지 증가하였고, 우리

나라의 위암 완치율이 세계 1.2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위암의 조기 발 견과 완치율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정기적인 검진이 주요했습니 다.

현재 국가암검진사업으로 2년 마다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직 장 검진을 포함하여 거의 매년 위 내시경을 받기도 하지요. 예전에 사 망선고와 같았던 위암 진단은 이제 는 더 이상 사망선고가 아닙니다. 조기 진단으로 완치가 되어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의 전구 병변이 대장 선종 (용종)을 제거하여 대장암을 예방 하고, 발생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 한다면 대장암 완치율도 많이 증가 할 것입니다. 멀지않은 100세 시 대, 건강한 100세 시대의 걸림이 내 시경 검사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 입니다.

정기적인 위, 대장 내시경 검사 를 통해 100세,120세 시대로 나아 갑시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8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 · 바른신문

발행 · 편집인 김형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내선 042)538-1602	광고신청내선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 이색카페 | 상담카페  
 당신을 위한 진정한 힐링



성향검사, 적성검사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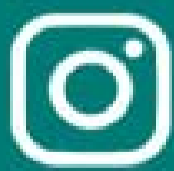
**NAVER**

“힐링문화카페 숨”

예약문의



070.8804.1234



@cafeshuim



대전 중구 중앙로 170번길 28, 3층  
은행동 와와돈 3층



월화목금 10:00 ~ 22:00  
 일요일 15:00 ~ 22:00  
 수요일 : 휴무